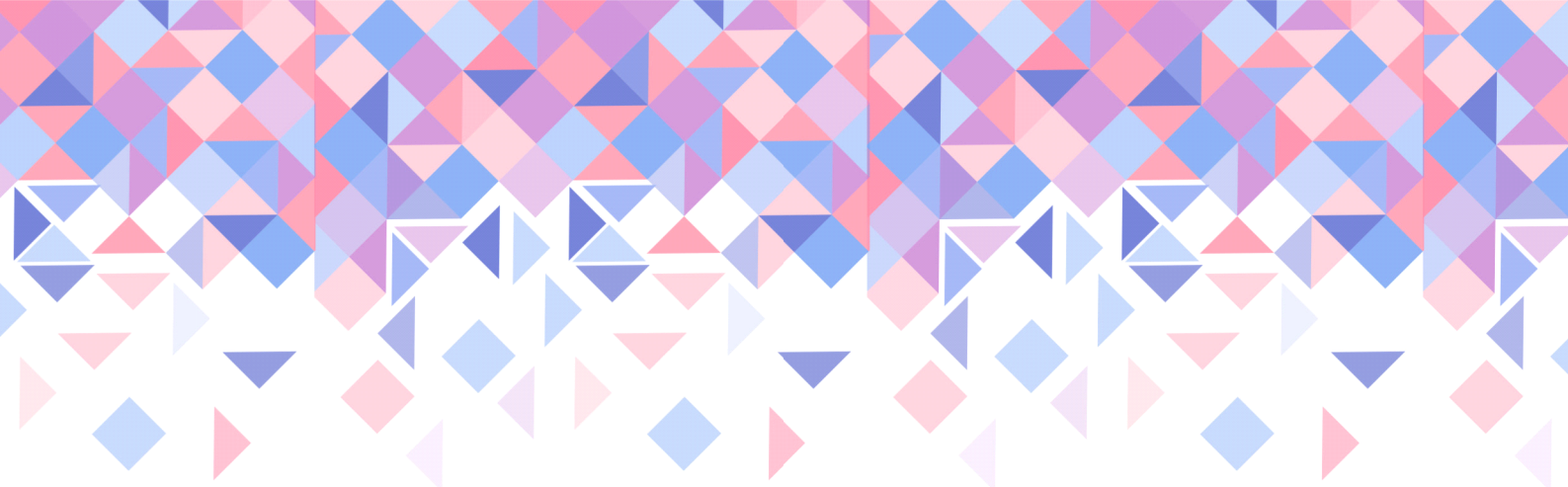




2021년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 조사보고서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 조사보고서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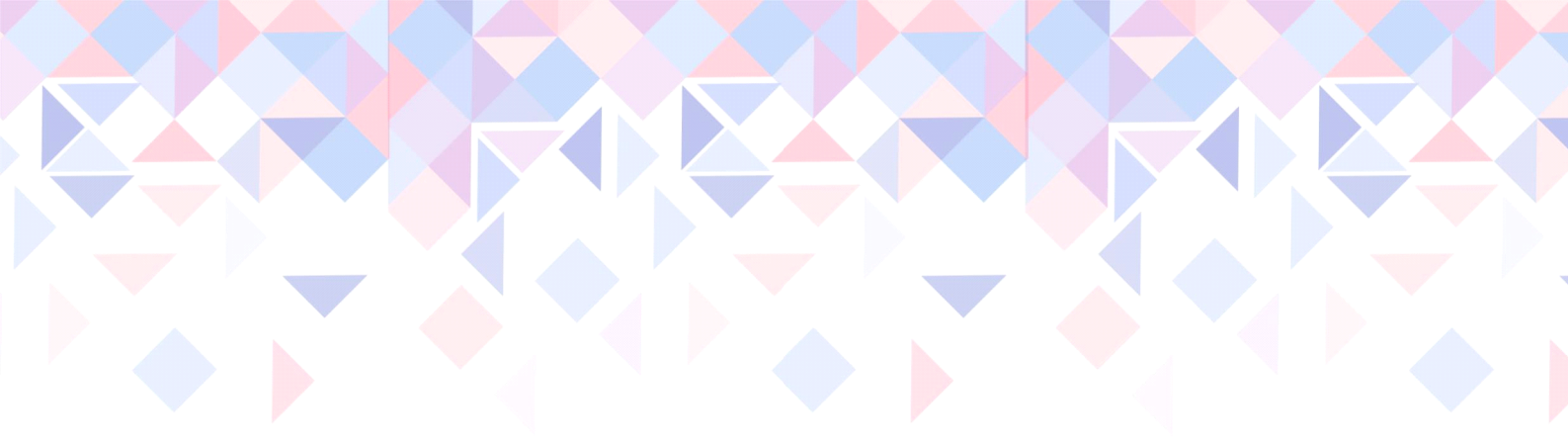
기관소개	1
조사요약	4
Ⅰ. 욕구조사 개요	14
1. 조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방법	15
Ⅱ. 조사결과	18
1.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장애인)	19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9
나. 시설 입소 과정 및 생활 현황	27
다. 탈시설 인식 및 욕구	30
라. 유형별 자기결정 차이	37
마. 자립생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1
2.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종사자)	52
가. 응답자 일반현황	52
나.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53
다. 시설 탈시설화 추진 현황	58
라. 종사자 고용 관련	60
마. 탈시설 정책 관련 의견	64
바.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Ⅲ. 결론 및 제언	68
Ⅳ. 부록	76

〈표 목차〉

〈표1〉 성별	19
〈표2〉 출생년도	19
〈표3〉 교육수준	20
〈표4〉 장애유형	20
〈표5〉 장애유형(대분류)	21
〈표6〉 중복장애 유무	21
〈표7〉 장애정도	21
〈표8〉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22
〈표9〉 연고자 유무	22
〈표10〉 연고자와 관계	22
〈표11〉 부양의무자 유무	23
〈표12〉 입소요청	23
〈표13〉 입소기간	24
〈표14〉 시설 이용 방법	24
〈표15〉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25
〈표16〉 지역	26
〈표17〉 시설 입소 이유	27
〈표18〉 시설 입소 결정	27
〈표19〉 시설 밖 생활경험	28
〈표20〉 낮 시간 활용 순위	28
〈표21〉 자기결정권	29
〈표22〉 시설에 대한 바람	30

〈표23〉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30
〈표24〉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31
〈표25〉 자립생활 희망	31
〈표26〉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유	32
〈표27〉 시설에 남고 싶은 이유	33
〈표28〉 자립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퇴소 의사	34
〈표29〉 시설 밖 생활에 필요한 도움	34
〈표30〉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사람	35
〈표31〉 자립할 때 살고 싶은 주거형태	35
〈표32〉 지역사회 거주 시 가장 필요한 도움	36
〈표33〉 성별, 장애 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 수준 별 자립 생활 욕구 비율 차이	37
〈표34〉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39
〈표35〉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42
〈표36〉 장애수준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45
〈표37〉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48
〈표38〉 자립생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51
〈표39〉 성별(종사자)	52
〈표40〉 연령대(종사자)	52
〈표41〉 직급	53
〈표42〉 탈시설화 인지도	53
〈표43〉 탈시설화 관심도	54
〈표44〉 탈시설화 필요성	54
〈표45〉 탈시설화 정책 필요 이유	55
〈표46〉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	55
〈표47〉 탈시설화 제약 요인	56

〈표48〉 탈시설화 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57
〈표49〉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주체를 기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로 선택한 이유	57
〈표50〉 탈시설화를 위한 소속 기관의 노력	58
〈표51〉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방법	58
〈표52〉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	59
〈표53〉 탈시설화 정책으로 일자리 상실 및 근로조건 하락 시 대응책	60
〈표54〉 고용 관련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	61
〈표55〉 탈시설 정책 관련 체감하는 고용불안 정도	62
〈표56〉 탈시설화가 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62
〈표57〉 탈시설화로 인한 실직 시 필요한 지원	63
〈표58〉 장애인 자립 시 필요한 도움	64
〈표59〉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필요 영역	65
〈표60〉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기관소개

기관소개

1. 설립목적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문제의 계몽·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션 & 비전

미션	당신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비전	전남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가치	고객존중	행복충족	가치창조	변화지향
	이용자에 대한 자세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통합	사회복지의 전문화	지역사회 및 고객의 인정
전략	개별화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자원개발과 홍보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체계적인 기관 운영시스템의 구축
운영원칙	참여자 중심지향	공감소통 강화	정합성의 이행	서비스 현장 준수
	자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업 진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허브 기능화	미션과 비전, 사업목적에 투합	고객과의 약속 및 이행 표준의 실행
행동가치	책임 업무수행	명확한 의사소통	상호존중	긍정생활 실천
	업무매뉴얼 실천 업무의 명확화 협력적 업무수행	외부기관 관계유지 격려의 일상화 정확하게 확인	적절한 호칭 사용 작은 의견도 경청 집단모임 적극적 참여	신속한 문제해결 구체적 감사하기 긍정언어 사용

3.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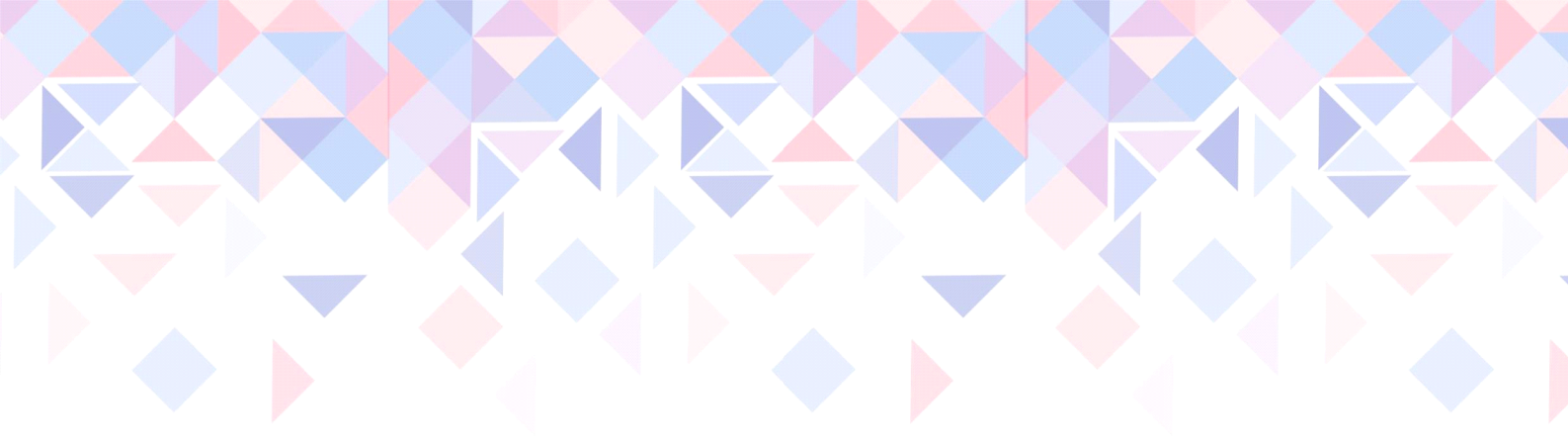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삼영동635-9)
- 운영법인 :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
- 개관일자 : 1991. 4. 1.

○ 연 혁

- | | |
|--------------|---|
| 1991. 02. 28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준공 |
| 1991. 04. 01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 1991. 04. 14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 |
| 1991. 05. 23 |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운영 위·수탁 계약 |
| 1992. 01. 01 | 재가장애인복지센터 개소 |
| 1993. 04. 20 | 제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창설.주관(2004년 12월) |
| 1993. 11. 19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분관 개관 |
| 1995. 12. 15 | 전라남도장애인체육관 준공 |
| 1996. 01. 01 | 순천분관 내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개설 |
| 1996. 05. 23 | 전남장애인재활협회 운영 위·수탁 계약 |
| 1997. 07. 10 | 보호작업장 인쇄·인장사업장 개장 |
| 1998. 02. 15 | 론볼링 및 게이트볼 경기장 개장 |
| 1999. 05. 19 | 분관 이전(여수시) 개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내) |
| 1999. 09. 01 | 주간보호센터 개소 |
| 2000. 01. 01 | 1999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 2000. 12. 27 | 전라남도장애인문화의집 개관 |
| 2001. 02. 01 | 홈페이지 개설(www.relife.or.kr) |
| 2001. 03. 01 |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시 |
| 2001. 04. 16 | 정보화교육사업 개시(보건복지부) |
| 2001. 11. 01 | 1588-0420 상담전화 개설 |
| 2001. 11. 26 | 전남장애인정보검색대회 개최(매년 1회) |
| 2002. 03. 02 | 영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개원 |
| 2003. 01. 01 | 2002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3. 03. 10	영강초등학교 특수학급 개원
2003. 11. 01	전라남도론볼경기장 준공
2003. 11. 03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개최(매년1회)
2004. 07. 2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2007. 01. 01	2006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7. 03. 05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교육기관으로 지정
2007. 11. 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위·수탁 계약
2008. 10. 01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성분관 개관
2009. 01. 0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2009. 03. 02	나주중학교 특수학급 개원
2011. 04. 01	개관 20주년기념 20년사 발간
2014. 12. 01	전국 사회복지나눔대회 우수멘터멘티 표창장 수상
2015. 03. 05	2014년 장애인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등급기관 선정
2016. 07. 14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6. 12. 16	분관이전(장흥군) 개관
2018. 03. 20	2017년 장애인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등급기관 선정
2019. 01. 01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위·수탁
2019. 08. 1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2019. 10. 05	활동지원기관 지정
2019. 12. 30	2019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위탁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0. 04.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2020. 05. 20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 법인 명칭변경



조사요약

조사요약

1.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장애인)

가. 응답자 일반현황

- 조사대상자 : 130명
- 성별 : 남성 88명(67.7%), 여성 42명(32.3%)
- 출생년도 : 1980년대 29명(25.9%), 1970년대 27명(24.1%), 1960년대 21명(18.8%), 1990년대 21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수준 : 중학교 졸업 이하 55명(45.5%), 고등학교 졸업 이상 66명(54.5%)으로 나타났다.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84명(66.1%), 지체장애 27명(21.3%), 뇌병변장애 7명(5.5%) 순으로 나타났다.
- 중복장애 유무 : 28명(28.3%)이 중복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117명(90%), 심하지 않은 장애 13명(10%)로 나타났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 수급자 117명(92.1%), 비수급자 10명(7.9%)로 나타났다.
- 연고자 유무 : 유연고자 102명(81%), 무연고자 24명(19%)으로 나타났다.
 - 유연고자와의 관계는 부모 43명(45.3%), 형제 42명(44.2%), 기타 7명(7.4%) 순으로 나타났다.
- 부양의무자 유무 : 없음 92명(82.9%), 있음 19명(17.1%)으로 나타났다.
- 입소 요청 : 보호자 의뢰 69명(56.1%), 사회복지기관 30명(24.4%), 본인 희망 12명(9.8%), 기타(9.8%) 순으로 나타났다.
- 입소기간 : 10년 이상 60명(56.1%), 10년 미만 47명(43.9%)으로 나타났다.
- 시설이용 방법 : 무료 이용 101명(90.2%), 유료 이용 11명(9.8%)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다중응답) : 성, 인권교육, 상담, 가족회의 등 122명(93.1%), 사회적응훈련 120명(91.6%), 취미 및 여가생활 118명(90.1%), 기초생활지도 110명(84.0%),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90명(68.7%), 재활 및 심리치료 79명(60.3%), 직업재활훈련 49명(37.4%), 공동생활가정, 체험 홈 등 36명(27.5%), 특별훈련 13명(9.9%)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130명) : 나주 19명(14.6%), 여수 18명(13.8%), 목포 15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나. 시설 입소 과정 및 생활 현황

- 시설 입소 이유 : 가족이 나를 돌봐 줄 수 없어서 79명(65%), 기타 15명(15%), 잘 모르겠음 1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 입소 결정 : 가족이나 지인 권유 72명(56.3%), 스스로 결정 22명(17.2%), 기타 19명(14.8%), 가족이 강제로 결정 10명(7.8%), 타인에 의해 강제 결정 5명(3.9%)으로 나타났다.
- 시설 밖 생활 경험 : 시설 밖 경험이 없다 117명(95.1%), 시설 밖 경험이 있다 6명(4.9%)으로 나타났다.
- 낮 시간 활용
 - 1순위 : 시설 내 서비스 이용 46명(47.9%), 직업 활동 17명(17.7%)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TV시청 36명(43.4%), 시설 내 서비스 이용 28명(33.7%) 순으로 나타났다.
- 7개 영역(기상 및 취침, 식사 시간, 낮 시간 이용, 국가 보조금, 후원금 관리, 자산 스스로 관리 여부, 자산 직원이나 후견인 관리 여부, 자산 직원과 같이 사용 후 내용 고지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
 - ① 기상 및 취침 자기 결정 : 그렇다 105명(81.4%), 아니다 22명(17.1%)
 - ② 식사 시간 자기 결정 : 그렇다 63명(50.0%), 아니다 59명(46.8%)
 - ③ 낮 시간 이용 자기 결정 : 그렇다 112명(86.8%), 아니다 16명(12.4%)
 - ④ 국가 보조금(장애 수당, 장애 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및 후원금 관리 자기결정 : 그렇다 40명(32.5%), 아니다 79명(64.2%)
 - ⑤ 용돈, 통장,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자기 결정 : 그렇다 47명(37.6%), 아니다 75명(60.0%)
 - ⑥ 용돈, 통장, 카드 사용 등을 직원이나 후견인 관리 : 그렇다 89명(74.8%), 아니다 27명(22.7%)
 - ⑦ 용돈, 통장, 카드사용 등을 직원과 같이 사용 후 내용 고지 : 그렇다 112명(93.3%), 아니다 4명(3.3%)으로 나타났다.
- 시설에 대한 바람 : 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50명(21.3%), 원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음 44명(18.7%), 자유로운 생활 허용 30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다. 탈시설 인식 및 욕구

- 탈시설화 및 자립상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여부 :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관하여 들어본 적 있음 100명(79.4%), 들어본 적 없음 26명(20.6%)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정보에 대한 경로 : 기타(시설종사자 등) 38명(38%),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27명(27%), TV 등 미디어 매체 15명(15%) 순으로 나타났다.
- 자립 생활 희망 : 원하지 않는다 69명(55.2%), 원한다 43명(34.4%), 잘 모르겠다 13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 자립 생활을 원하는 이유
 - 1순위 :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명(40%),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11명(24.4%)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13명(34.2%),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12명(31.6%)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에 남고 싶은 이유
 - 1순위 : 시설 생활에 큰 불만이 없어서 32명(45.7%), 퇴소하여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12명(17.1%), 퇴소하면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10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퇴소하면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16명(25%), 퇴소하여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11명(17.2%), 퇴소 후 의지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9명(14.1%), 퇴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7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 자립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퇴소 의사 : 없음 52명(44.4%), 있음 45명(38.5%), 잘 모르겠음 20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시설 밖 생활에 필요한 도움
 - 1순위 : 집이나 집을 살 수 있는 돈 24명(43.6%), 일자리 11명(20%), 생활비 9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나를 도와줄 전문가 11명(21.6%), 생활비 9명(17.6%), 일자리 9명(17.6%),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인력 8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혼자 20명(33.9%), 활동지원인 11명(18.6%), 가족 10명(16.9%),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10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주거 형태 : 독립형 주택 24명(40.7%), 지원주택 15명(25.4%), 공동체형 거주 시설 8명(13.6%), 그룹 홈 8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거주 시 가장 필요한 도움
 - 1순위 : 주거 지원 62명(56.9%), 일자리 지원 14명(12.8%), 일상생활 지원 11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생활비 지원 38명(35.8%), 일상생활 지원 23명(21.7%), 일자리 지원 17명(16%) 순으로 나타났다.

라. 유형별 자기 결정 차이(교차분석)

- 성별, 장애 유형별, 중복장애 유무별, 장애 수준별 자립 생활 욕구(비율) 차이
 - 성별, 장애 유형별, 중복장애 유무별, 장애 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 자기결정 행사는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 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장애 수당, 장애 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 수준별 자기 결정 비율 차이
 - 장애 수준(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별 자기결정 행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보다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이 더 높고, 용돈, 통장, 카드 공동관리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돈, 통장, 카드 타인관리 비율은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장애인의 성별, 출생년도(연령), 교육 수준, 중복장애 수준,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입소 기간이 자립생활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출생년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연령이 한 단계 감소하면) 자립생활 욕구는 약 1.125배로 증가하며, 입소기간이 한 단계 증가하면 자립생활 욕구는 1.0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입소기간은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종사자)

가. 응답자 일반현황(종사자)

- 조사대상자 : 143명
- 성별 : 남성 54명(37.8%), 여성 89명(62.2%)
- 연령대 : 40대 65명(45.8%), 30대 29명(20.4%), 50대 28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 직급 : 생활재활 교사 70명(50.7%), 기타 26명(18.8%), 중간관리자 25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나.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 탈시설화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62명(43.4%), 조금 안다 55명(38.5%), 매우 잘 안다 18명(12.6%)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탈시설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관심도 : 관심 있음 104명(72.7%), 매우 관심 있음 21명(14.7%)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탈시설화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필요성 : 필요함 58명(41.1%), 불필요함 52명(36.9%)으로 탈시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탈시설화 정책 필요 이유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31명(54.4%), 장애인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12명(21.1%), 자율성 통제 등 집단생활의 한계 때문에 12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 :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69명(48.6%),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급속한 정책 추진 45명(31.7%),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탈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15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제약 요인
 - 1순위 :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70명(4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순위 :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 증가 41명(28.7%),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37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후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 기존의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72명(50.7%), 기존의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종사자 모두 39명(27.5%), 공공기관 25명(17.6%), 새로운 민간기관(법인)과 종사자 6명(4.2%) 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제공 주체를 기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로 선택한 이유 :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36명(50%), 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33명(45.8%) 순으로 나타났다.

다. 시설 탈시설화 추진 현황

- 탈시설화를 위한 소속 기관의 노력 : 소속 기관은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2명(71.8%), 매우 노력하고 있음 19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방법(다중응답) : 체험홈 제공 63명(25.4%), 이용자들에게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공유 58명(23.4%), 탈시설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56명(22.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47명(19%)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
 - 1순위 : 시설 내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많아서 17명(85%)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탈시설화 정책을 불신하므로 10명(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 종사자 고용 관련

- 탈시설화 정책으로 일자리 상실 및 근로조건 하락 시 대응책 : 고용 승계나 연계를 요구할 것임 72명(50.3%), 탈시설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 34명(23.8%), 탈시설화 정책을 수용하되 보상을 요구할 것임 27명(18.9%)으로 나타났다.
- 고용 관련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
 - 1순위 : 시설 축소나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90명(63.4%)
 - 2순위 :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저하 40명(32.8%)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 정책 추진 시 체감하는 고용불안 : 약간 불안하다 40명(34.3%), 불안하다 43명(30.7%), 매우 불안하다 36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가 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현재와 유사한 일을 할 것 같다 67명(4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탈시설화로 인한 실직 시 필요한 지원
 - 1순위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인정 58명(41.4%), 재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58명(41.4%)으로 나타났다.
 - 2순위 : 재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37명(29.4%),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인정 32명(25.4%) 순으로 나타났다.

마. 탈시설 정책 관련 의견

○ 장애인 자립 시 필요한 도움

- 1순위 : 주거 지원 73명(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순위 : 일상생활 지원 34명(24.5%), 생활비 지원 32명(23%), 일자리 지원 24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 3순위 : 일상생활 지원 25명(18.5%), 일자리 지원 23명(17%), 거주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 및 자립 생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필요영역(5점 척도)

- 경제생활 보장 4.66점, 생활공간 제공시설 필요 4.66점, 건강관리 지원 4.61점, 돌봄 지원 4.6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 4가지 영역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사자의 성별, 연령, 직급,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 탈시설화를 위한 시설의 노력,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고용 불안 정도가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OR=3.714$, $p<.05$)은 탈시설화 정책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한 단계 증가하면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이 3.7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욕구조사 개요

I. 욕구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의 선택권과 사생활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며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상실하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정부는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740여 명씩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0년 기준 전국 장애인 인구는 2,633,026명이며 전라남도의 장애인 인구는 140,942명이다. 즉, 전라남도 장애인 인구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20). 그중 38개소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1,251명이므로 전라남도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3%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로 확인되고 있다(전라남도 사회지표, 2020).
- 본 조사에서는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 실천적 지원이 필요한지 밝혀내어 장애인의 성공적인 탈시설화 및 자립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조사기간

- 2021년 11월 8일 ~ 2021년 11월 17일 (10일)

나. 조사대상

-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 시설 38개소 이용자 130명, 종사자 143명

다. 조사내용

- 거주 시설 장애인 조사(3가지 영역 40문항)
 - 일반현황
 - 시설 입소 과정 및 생활 현황
 - 탈시설 인식 및 욕구
- 거주시설 종사자 조사(4가지 영역 24문항)
 -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 시설 탈시설화 추진 현황
 - 종사자 고용 관련
 - 탈시설 정책 관련 의견

라. 표본

1) 표본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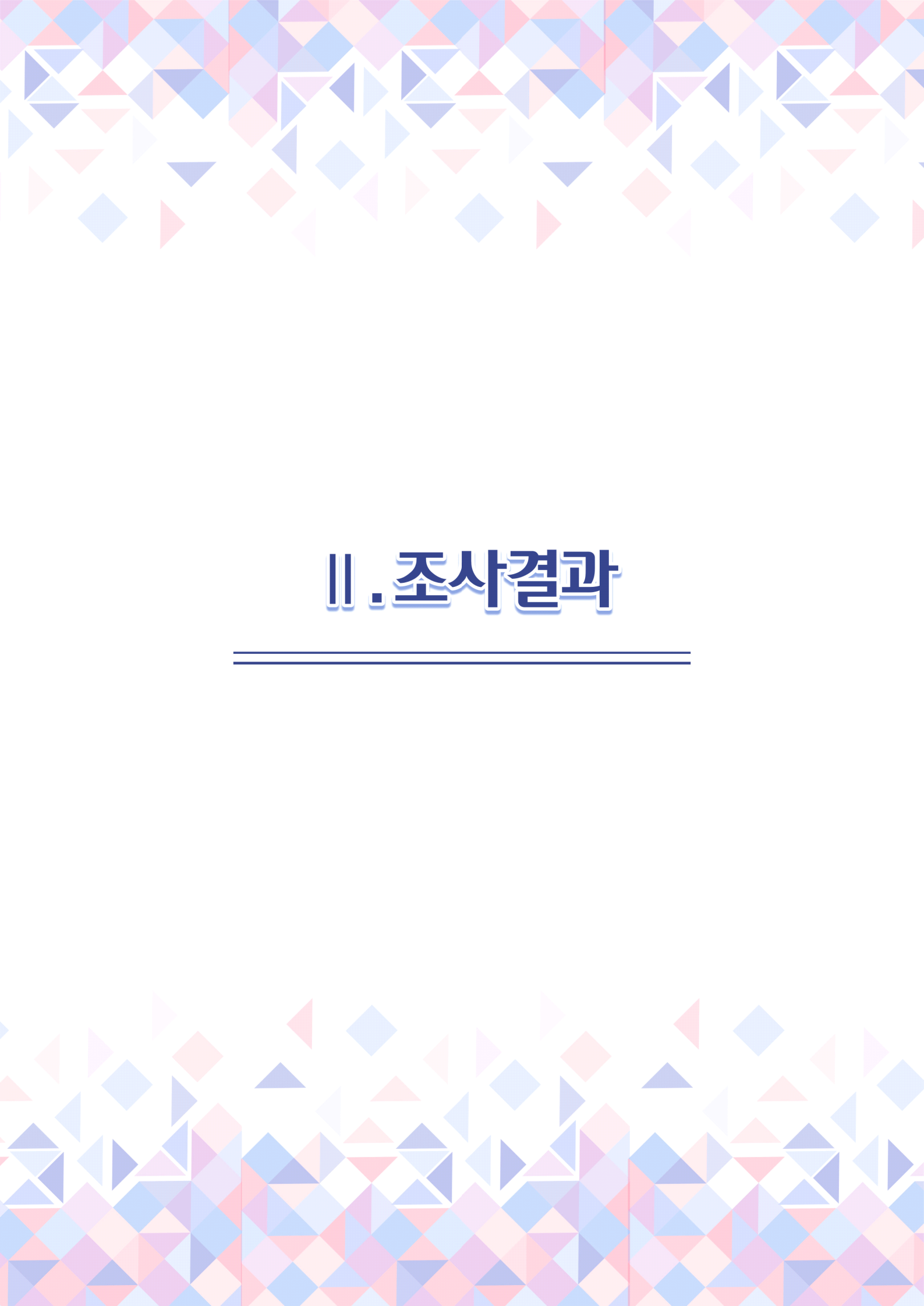
- 표본추출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거주 시설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를 모집단으로부터 의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유의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방법

- 우편 설문조사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협조하에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우편 설문을 시행하였다.
- 거주시설 장애인용 130명, 거주시설 종사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다음 우편으로 설문을 회수하였다.

마. 자료 분석

- SPSS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조사결과

II. 조사 결과

1.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성별

- 성별은 남성 88명(67.7%), 여성 42명(32.3%)으로 나타났다.

〈표1〉 성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남성	88	67.7	A bar chart with two bars. The first bar, labeled '남성' (Male), has a value of 67.7%. The second bar, labeled '여성' (Female), has a value of 32.3%.
여성	42	32.3	
합계	130	100.0	

2) 출생년도

- 출생년도는 195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로 나타났다.
- 출생년도 분포는 1980년대 29명(25.9%), 1970년대 27명(24.1%), 1960년대 21명(18.8%), 1990년대 21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출생년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1950년대	8	7.1	A horizontal bar chart with seven bars representing different decades. From top to bottom, the bars are: 2000년대 (5.4%), 1990년대 (18.8%), 1980년대 (25.9%), 1970년대 (24.1%), 1960년대 (18.8%), 1950년대 (7.1%), and a final unlabeled bar for the total (100%).
1960년대	21	18.8	
1970년대	27	24.1	
1980년대	29	25.9	
1990년대	21	18.8	
2000년대	6	5.4	
합계	112	100	

3) 교육 수준

-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58명(47.9%), 초등학교 졸업 22명(18.2%), 무학 21명(17.4%), 중학교 졸업 12명(9.9%), 대학교 졸업 8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표3〉 교육수준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무학	21	17.4	
초등학교 졸업	22	18.2	
중학교 졸업	12	9.9	
고등학교 졸업	58	47.9	
대학교 졸업	8	6.6	
합계	121	100.0	

4) 장애 유형

-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84명(6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27명(21.3%), 뇌병변장애 7명(5.5%)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장애유형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지체장애	27	21.3	
뇌병변장애	7	5.5	
청각장애	3	2.4	
지적장애	84	66.1	
자폐성장애	1	0.8	
정신장애	3	2.4	
신장장애	1	0.8	
뇌전증장애	1	0.8	
합계	127	100.0	

- 장애 유형은 정신적 장애인 88명(69.3%), 신체적 장애인 39명(30.7%)으로 조사되어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장애유형(대분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신체적 장애	외부장애	37	29.1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	2	1.6		
정신적 장애		88	69.3	내부장애	1.6%
합계		127	100.0	외부장애	29.1%

5) 중복장애 유무

- 조사대상자의 28명(28.3%)이 중복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중복장애 유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중복장애 있음	28	28.3		
중복장애 없음	71	71.7		
합계	99	100.0		

6) 장애정도

-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 117명(9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3명(10%)으로 나타났다.

〈표7〉 장애정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심한장애	117	90.0		
심하지 않은 장애	13	10.0		
합계	130	100.0		

7)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수급자 117명(92.1%), 비 수급자 10명(7.9%)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었다.

〈표8〉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국민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자	117	92.1	92.1%	7.9%
	비수급자	10	7.9		
	합계	127	100.0	수급자	비수급자

8) 연고자 유무

- 유연고자 102명(81%), 무연고자 24명(19%)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중 86명(68.3%)은 연고자와 왕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연고자 유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유연고자(왕래중)	86	68.3	68.3%	12.7%	19.0%
유연고자(연락두절)	16	12.7			
무연고자	24	19.0			
합계	126	100.0	유연고자(왕래중)	유연고자(연락두절)	무연고자

- 연고자와의 관계는 부모 43명(45.3%), 형제 42명(44.2%), 기타 7명(7.4%)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연고자와 관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부모	43	45.3	45.3%	44.2%	3.2%	7.4%
형제	42	44.2				
사촌(친인척)	3	3.2				
기타	7	7.4				
합계	95	100.0	부모	형제	사촌(친인척)	기타

9)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 없음 92명(82.9%), 부양의무자 있음 19명(17.1%)으로 조사대상자 다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부양의무자 유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부양의무자 있음	19	17.1	
부양의무자 없음	92	82.9	
합계	111	100.0	

10) 입소요청

- 조사대상자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요청은 보호자 의뢰 69명(56.1%), 사회복지기관 의뢰 30명(24.4%), 본인 희망 12명(9.8%) 순으로 나타났다.

〈표12〉 입소요청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본인희망	12	9.8	
사회복지기관 의뢰	30	24.4	
보호자 의뢰	69	56.1	
기타	12	9.8	
합계	123	100.0	

11) 입소기간

- 입소 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31명(29%), 5년 이상 10년 미만 30명(28%), 20년 이상 30년 미만 20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평균 입소 기간은 164개월로 나타났다.

〈표13〉 입소기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1년 미만	1	9	<table><tr><td>30년 이상</td><td>8.4%</td></tr><tr><td>20년 이상 30년 미만</td><td>18.7%</td></tr><tr><td>10년 이상 20년 미만</td><td>29.0%</td></tr><tr><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28.0%</td></tr><tr><td>3년 이상 5년 미만</td><td>9.3%</td></tr><tr><td>1년 이상 3년 미만</td><td>5.6%</td></tr><tr><td>1년 미만</td><td>0.9%</td></tr></table>	30년 이상	8.4%	20년 이상 30년 미만	18.7%	10년 이상 20년 미만	29.0%	5년 이상 10년 미만	28.0%	3년 이상 5년 미만	9.3%	1년 이상 3년 미만	5.6%	1년 미만	0.9%
30년 이상	8.4%																
20년 이상 30년 미만	18.7%																
10년 이상 20년 미만	29.0%																
5년 이상 10년 미만	28.0%																
3년 이상 5년 미만	9.3%																
1년 이상 3년 미만	5.6%																
1년 미만	0.9%																
1년 이상 3년 미만	6	5.6															
3년 이상 5년 미만	10	9.3															
5년 이상 10년 미만	30	28.0															
10년 이상 20년 미만	31	29.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18.7															
30년 이상	9	8.4															
합계	107	100.0															
평균 입소기간 : 164 개월(범위 3개월~ 600개월)																	

12) 시설 이용 방법

- 무료 이용 101명(90.2%), 유료 이용 11명(9.8%)으로 나타났다.

〈표14〉 시설 이용 방법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무료 이용	101	90.2	
유료 이용	11	9.8	
합계	112	100.0	

13)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다중응답)

- 조사대상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성, 인권교육, 상담, 가족회의 등 122명(93.1%), 사회적응훈련 120명(91.6%), 취미 및 여가생활 118명(90.1%), 기초생활지도 110명(84%),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90명(68.7%), 재활 및 심리치료 79명(60.3%), 직업재활훈련 49명(37.4%),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등 36명(27.5%), 특별훈련 1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기초생활지도	110	84.0	
사회적응훈련	120	91.6	
직업재활훈련	49	37.4	
취미 및 여가생활	118	90.1	
특별훈련	13	9.9	
재활 및 심리치료	79	60.3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등	36	27.5	
성, 인권교육, 상담, 가족회의 등	122	93.1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90	68.7	

14) 지역

-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나주 19명(14.6%), 여수 18명(13.8%), 목포 15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16〉 지역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목포시	15	11.5	
여수시	18	13.8	
순천시	5	3.8	
나주시	19	14.6	
광양시	5	3.8	
담양군	8	6.2	
곡성군	10	7.7	
보성군	3	2.3	
화순군	10	7.7	
영암군	9	6.9	
무안군	6	4.6	
함평군	2	1.5	
영광군	9	6.9	
신안군	10	7.7	
타지역	1	0.8	
합계	130	100.0	

나. 시설 입소 과정 및 생활 현황

1) 시설 입소 이유

-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이 나를 돌봐 줄 수 없어서 78명(65%), 기타 15명(12.5%), 잘 모르겠음 12명(10%),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8명(6.7%) 등으로 나타났다.
- 즉,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다수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시설 입소 이유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가족이 나를 돌봐 줄 수 없어서	78	65.0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2	1.7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8	6.7	
독립해서 살 집이 없어서	1	0.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	0.8	
재활치료 및 교육, 훈련을 받기위해	3	2.5	
잘 모르겠음	12	10.0	
기타	15	12.5	
합계	120	100.0	

2) 시설 입소 결정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결정은 가족이나 지인 권유 72명(56.3%), 스스로 결정 22명(17.2%), 기타 19명(14.8%), 가족이 강제로 결정 10명(7.8%), 타인에 의해 강제 결정 5명(3.9%) 순으로 나타났다.
- 즉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여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부양의 어려움에 따라 가족이나 타인의 결정에 의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시설 입소 결정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스스로 결정	22	17.2	
가족이나 지인 권유	72	56.3	
가족이 강제로 결정	10	7.8	
타인에 의해 강제 결정	5	3.9	
기타	19	14.8	
합계	128	100.0	

3) 시설 밖 생활 경험

- 조사대상자의 117명(95.1%)이 장애인 거주시설 이외의 외부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시설 밖 생활경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있음	6	4.9	없음	95.1%
없음	117	95.1		
합계	123	100.0		
평균 시설 밖 생활 기간 : 55.4개월 (0~240개월)			있음	4.9%

4) 낮 시간 활용 순위

- 낮 시간 활용 1순위는 시설 내 서비스 이용 46명(47.9%), 직업 활동 17명(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TV 시청 36명(43.4%), 시설 내 서비스 이용 28명(33.7%)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낮 시간 활용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그래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등교	13	13.5	0	0	
직업 활동	17	17.7	0	0	
시설 외 서비스 이용	3	3.1	4	4.8	
시설 내 서비스 이용	46	47.9	28	33.7	
TV 시청	7	7.3	36	43.4	
아무것도 안함	2	2.1	5	6.0	
기타	8	8.3	9	10.8	
시설 외 학원 이용	0	0.0	1	1.2	
합계	96	100.0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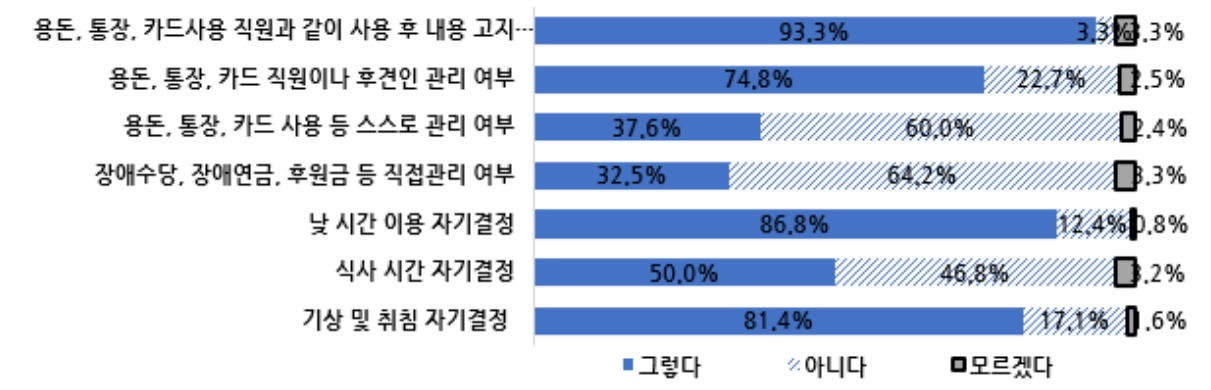
5) 자기결정권

- 조사대상자의 기상 및 취침에 대한 자기결정은 그렇다 105명(81.4%), 아니다 22명(17.1%)로 나타났고 식사시간 자기결정은 그렇다 63명(50.0%), 아니다 59명(46.8%)로 나타났으며 낮 시간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은 그렇다 112명(86.8%), 아니다 16명(12.4%)로 나타났다.
- 국가 보조금(장애수당, 장애 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비), 후원금 관리에 대한 자기결정은 그렇다 40명(32.5%), 아니다 79명(64.2%)로 나타났고, 용돈, 통장,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자기관리 여부는 그렇다 47명(37.6%), 아니다 75명(60.0%)로 나타났다. 용돈, 통장, 카드의 타인(직원이나 후견인) 관리 여부는 그렇다 89명(74.8%), 아니다 27명(22.7%) 그리고 용돈, 통장, 카드 사용에 대한 공동관리(직원과 같이 사용 후 내용 고지) 여부는 그렇다 112명(93.3%), 아니다 4명(3.3%)로 나타났다.

〈표21〉 자기결정권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합계(N)	
	빈도	분포(%)	빈도	분포(%)	빈도	분포(%)	빈도	분포(%)
기상 및 취침 자기결정	105	81.4	22	17.1	2	1.6	129	100.0
식사 시간 자기결정	63	50.0	59	46.8	4	3.2	126	100.0
낮 시간 이용 자기결정	112	86.8	16	12.4	1	0.8	129	100.0
장애수당, 장애연금, 후원금 등 직접관리 여부	40	32.5	79	64.2	4	3.3	123	100.0
용돈, 통장, 카드 사용 등 스스로 관리 여부	47	37.6	75	60.0	3	2.4	125	100.0
용돈, 통장, 카드 직원이나 후견인 관리 여부	89	74.8	27	22.7	3	2.5	119	100.0
용돈, 통장, 카드사용 직원과 같이 사용 후 내용 고지 여부	112	93.3	4	3.3	4	3.3	120	100.0

그래프



6) 시설에 바라는 것

- 조사대상자가 시설에 대해 바라는 것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50명(21.3%), 원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음 44명(18.7%), 자유로운 생활 허용 30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22〉 시설에 대한 바램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같은 방 사용자 인원을 줄였으면	25	10.6	
낡고 불편한 시설 개선 필요함	26	11.1	
원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음	44	18.7	
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50	21.3	
음식, 용모 관련 서비스 향상	15	6.4	
건의사항 수용	10	4.3	
장애인 존중	11	4.7	
자유로운 생활 허용	30	12.8	
개인물품 소지에 대한 허용적 태도	18	7.7	
기타	6	2.6	
합계	229	100.0	

다. 탈시설 인식 및 욕구

1)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자의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은 들어본 적 있음 100명(79.4%), 들어본 적 없음 26명(20.6%)으로 나타났다.

〈표23〉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들어본 적 있음	100	79.4	
들어본 적 없음	26	20.6	
합계	126	100.0	

2)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 조사대상자의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 경로는 기타(거주시설 종사자 등) 38명(38%),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27명(27%), TV 등 미디어 매체 15명(15%) 순으로 나타났다.

〈표24〉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가족이나 친척	7	7.0	
학교	8	8.0	
TV 등 미디어 매체	15	15.0	
인터넷	3	3.0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27	27.0	
퇴소자	2	2.0	
기타	38	38.0	
합계	100	100.0	

3) 자립생활 희망 사항

- 조사대상자의 자립생활 희망은 원하지 않는다 69명(55.2%), 원한다 43명(34.4%), 잘 모르겠다 13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25〉 자립생활 희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원한다	43	34.4	
원하지 않는다	69	55.2	
잘 모르겠다	13	10.4	
합계	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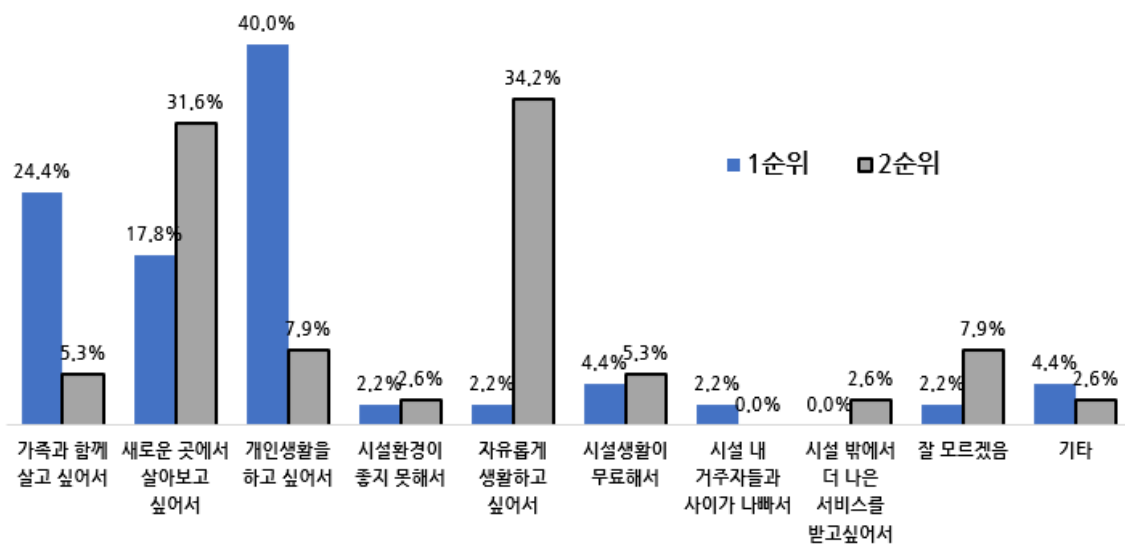
4)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유

- 조사대상자가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유는 1순위는 개인생활을 하고 싶어서 18명(40%),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11명(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13명(34.2%),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12명(31.6%) 순으로 나타났다.

〈표26〉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11	24.4	2	5.3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8	17.8	12	31.6
개인생활을 하고 싶어서	18	40.0	3	7.9
시설환경이 좋지 못해서	1	2.2	1	2.6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1	2.2	13	34.2
시설 생활이 무료해서	2	4.4	2	5.3
시설 내 거주자들과 사이가 나빠서	1	2.2	0	0.0
시설 밖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0	0.0	1	2.6
잘 모르겠음	1	2.2	3	7.9
기타	2	4.4	1	2.6
합계	45	100.0	38	100.0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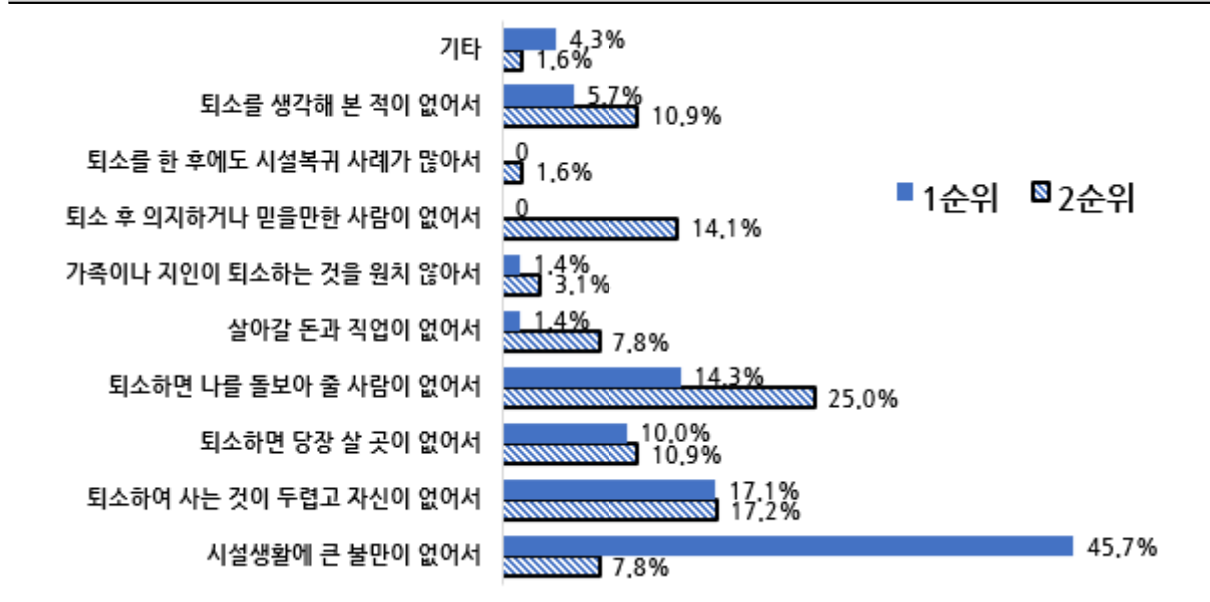
5) 시설에 남고 싶은 이유

- 조사대상자가 시설에 남고 싶은 이유 1순위는 경우 시설 생활에 큰 불만이 없어서 32명(45.7%), 퇴소하여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12명(17.1%), 퇴소하면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10명(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경우 퇴소하면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16명(25%), 퇴소하여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11명(17.2%), 퇴소 후 의지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9명(14.1%), 퇴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7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27〉 시설에 남고 싶은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시설 생활에 큰 불만이 없어서	32	45.7	5	7.8
퇴소하여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12	17.1	11	17.2
퇴소하면 당장 살 곳이 없어서	7	10.0	7	10.9
퇴소하면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10	14.3	16	25.0
살아갈 돈과 직업이 없어서	1	1.4	5	7.8
가족이나 지인이 퇴소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1	1.4	2	3.1
퇴소 후 의지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0	0	9	14.1
퇴소를 한 후에도 시설복귀 사례가 많아서	0	0	1	1.6
퇴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4	5.7	7	10.9
기타	3	4.3	1	1.6
합계	70	100.0	64	100.0

그래프



6) 자립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퇴소 의사

- 조사대상자에게 자립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퇴소 의사는 없음 52명(44.4%), 있음 45명(38.5%), 잘 모르겠음 20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28〉 자립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퇴소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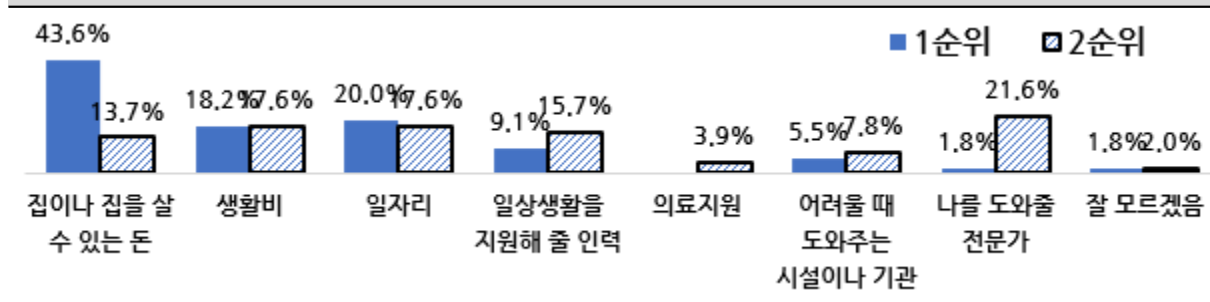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있음	45	38.5	
없음	52	44.4	
잘 모르겠음	20	17.1	
합계	117	100.0	

7) 시설 밖 생활에 필요한 도움

- 시설 밖 생활에서 조사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 1순위는 집이나 집을 살 수 있는 돈 24명(43.6%), 일자리 11명(20%), 생활비 10명(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나를 도와줄 전문가 11명(21.6%), 생활비 9명(17.6%), 일자리 9명(17.6%),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인력 8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29〉 시설 밖 생활에 필요한 도움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집이나 집을 살 수 있는 돈	24	43.6	7	13.7
생활비	10	18.2	9	17.6
일자리	11	20.0	9	17.6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인력	5	9.1	8	15.7
의료지원	0	0	2	3.9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시설이나 기관	3	5.5	4	7.8
나를 도와줄 전문가	1	1.8	11	21.6
잘 모르겠음	1	1.8	1	2.0
합계	55	100.0	51	100.0



8)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조사대상자가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혼자 20명(33.9%), 활동지원인 11명(18.6%), 가족 10명(16.9%),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10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표30〉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사람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혼자	20	33.9	
친구나 동료	5	8.5	
활동지원인	11	18.6	
가족	10	16.9	
결혼해서 배우자와	10	16.9	
기타	3	5.1	
합계	59	100.0	

9) 자립할 때 살고 싶은 주거형태

- 조사대상자가 자립할 때 함께 살고 싶은 주거형태는 독립형 주택 24명(40.7%), 지원주택 15명(25.4%), 공동체형 거주시설 8명(13.6%), 그룹홈 8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자립할 때 살고 싶은 주거형태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독립형 주택	24	40.7	
지원주택	15	25.4	
그룹홈	8	13.6	
공동체형 거주시설	8	13.6	
잘 모르겠음	2	3.4	
기타	2	3.4	
합계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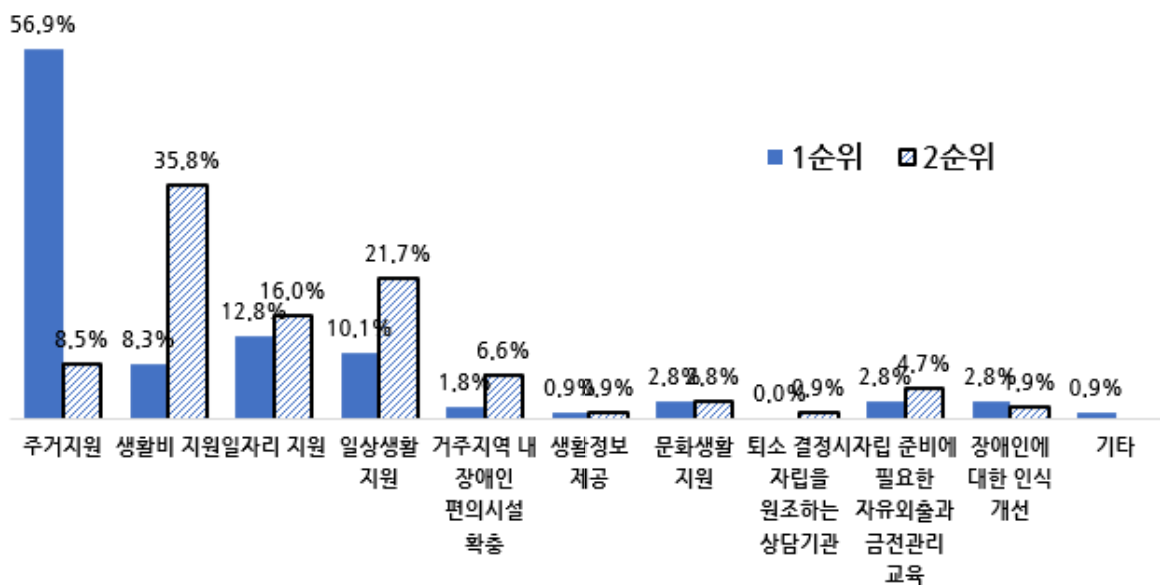
10) 지역사회 거주 시 가장 필요한 도움

- 조사대상자가 지역사회 거주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 1순위는 경우 주거지원 62명(56.9%), 일자리 지원 14명(12.8%), 일상생활 지원 11명(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경우 생활비 지원 38명(35.8%), 일상생활 지원 23명(21.7%), 일자리 지원 17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지역사회 거주 시 가장 필요한 도움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주거지원	62	56.9	9	8.5
생활비 지원	9	8.3	38	35.8
일자리 지원	14	12.8	17	16.0
일상생활 지원	11	10.1	23	21.7
거주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1.8	7	6.6
생활정보 제공	1	0.9	1	0.9
문화생활 지원	3	2.8	3	2.8
퇴소 결정 시 자립을 원조하는 상담기관	0	0.0	1	0.9
자립 준비에 필요한 자유외출과 금전관리 교육	3	2.8	5	4.7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3	2.8	2	1.9
기타	1	0.9	0	0.0
합계	109	100.0	106	100.0

그래프



라. 유형별 자기결정 차이(교차분석)

1) 성별, 장애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수준 별 자립생활 욕구 비율 차이

○ 성별, 장애유형별(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중복장애 유무별(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장애수준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자립생활 욕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자립생활 욕구 비율은 성별, 장애 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 수준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성별, 장애 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 수준 별 자립 생활 욕구 비율 차이

성별, 장애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수준 별 자립생활 욕구 비율 차이								그래프
성별	구분	빈도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24
	원한다	빈도	29	13	42	1.283	.526	
		%	35.4	31.0	33.9			
	원하지 않는다	빈도	43	26	69			
		%	52.4	61.9	55.6			
	잘 모르겠다	빈도	10	3	13			
		%	12.2	7.1	10.5			
	전체	빈도	82	42	124			
		%	100.0	100.0	100.0			
장애 유형	구분	빈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21
	원한다	빈도	13	29	42	.316	.854	
		%	36.1	34.1	34.7			
	원하지 않는다	빈도	20	46	66			
		%	55.6	54.1	54.5			
	잘 모르겠다	빈도	3	10	13			
		%	8.3	11.8	10.7			
	전체	빈도	36	85	121			
		%	100.0	100.0	100.0			

성별, 장애유형, 중복장애 유무, 장애수준 별 자립생활 욕구 비율 차이								그래프
중복 장애 유무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5
	원한다	빈도	5	31	36	5.495	.064	
		%	19.2	44.9	37.9			
	원하지 않는다	빈도	19	33	52			
		%	73.1	47.8	54.7			
	잘 모르겠다	빈도	2	5	7			
		%	7.7	7.2	7.4			
	전체	빈도	26	69	95			
		%	100.0	100.0	100.0			
장애 수준	구분	분포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χ^2	p	N=124
	원한다	빈도	39	4	43	.548	.760	
		%	34.8	33.3	34.7			
	원하지 않는다	빈도	62	6	68			
		%	55.4	50.0	54.8			
	잘 모르겠다	빈도	11	2	13			
		%	9.8	16.7	10.5			
	전체	빈도	112	12	124			
		%	100.0	100.0	100.0			

2)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 성별에 따라 기상 및 취침에 대한 자기결정, 식사시간 자기결정, 낮 시간 이용 자기결정, 장애수당, 장애 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관리,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용돈, 통장, 카드 타인 관리, 용돈, 통장, 카드 공동관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자기결정 비율은 성별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기상 및 취침 자기 결정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28
	그렇다	빈도	68	36	104	2.554	.279	
		%	78.2	87.8	81.3			
	아니다	빈도	18	4	22			
		%	20.7	9.8	17.2			
	모르겠다	빈도	1	1	2			
		%	1.1	2.4	1.6			
	전체	빈도	87	41	128			
		%	100.0	100.0	100.0			
식사 시간 자기 결정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25
	그렇다	빈도	40	22	62	2.106	.349	
		%	46.5	56.4	49.6			
	아니다	빈도	44	15	59			
		%	51.2	38.5	47.2			
	모르겠다	빈도	2	2	4			
		%	2.3	5.1	3.2			
	전체	빈도	86	39	125			
		%	100.0	100.0	100.0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낮 시간 이용 자기 결정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28
	그렇다	빈도	76	35	111	.704	.703	87.4% 85.4% 11.5% 14.6% 1.1% 0.0% ■ 남성 ■ 여성
		%	87.4	85.4	86.7			
	아니다	빈도	10	6	16			
		%	11.5	14.6	12.5			
	모르겠다	빈도	1	0	1			
		%	1.1	0.0	0.8			
	전체	빈도	87	41	128			
		%	100.0	100.0	100.0			
국가 보조 금 관리 자기 결정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22
	그렇다	빈도	30	9	39	4.133	.127	35.7% 23.7% 59.5% 76.3% 4.8% 0.0% ■ 남성 ■ 여성
		%	35.7	23.7	32.0			
	아니다	빈도	50	29	79			
		%	59.5	76.3	64.8			
	모르겠다	빈도	4	0	4			
		%	4.8	0.0	3.3			
	전체	빈도	84	38	122			
		%	100.0	100.0	100.0			
용돈 , 통장 , 카드 자기 관리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24
	그렇다	빈도	32	14	46	1.522	.467	37.6% 35.9% 58.8% 64.1% 3.5% 0.0% ■ 남성 ■ 여성
		%	37.6	35.9	37.1			
	아니다	빈도	50	25	75			
		%	58.8	64.1	60.5			
	모르겠다	빈도	3	0	3			
		%	3.5	0.0	2.4			
	전체	빈도	85	39	124			
		%	100.0	100.0	100.0			

성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용돈 '통장' 카드 타인 관리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18
	그렇다	빈도	60	28	88	1.398	.497	73.2% 77.8% 23.2% 22.2% 3.7% 0.0% ■ 남성 ■ 여성
		%	73.2	77.8	74.6			
	아니다	빈도	19	8	27			
		%	23.2	22.2	22.9			
	모르겠다	빈도	3	0	3			
		%	3.7	0.0	2.5			
	전체	빈도	82	36	118			
		%	100.0	100.0	100.0			
용돈 '통장' 카드 공동 관리	구분	분포	남성	여성	전체	χ^2	p	N=119
	그렇다	빈도	76	35	111	3.574	.167	90.5% 100.0% 4.8% 0.0% 4.8% 0.0% ■ 남성 ■ 여성
		%	90.5	100.0	93.3			
	아니다	빈도	4	0	4			
		%	4.8	0.0	3.4			
	모르겠다	빈도	4	0	4			
		%	4.8	0.0	3.4			
	전체	빈도	84	35	119			
		%	100.0	100.0	100.0			

3)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 장애유형(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에 따라 기상 및 취침에 대한 자기결정, 식사시간 자기결정, 낮 시간 이용 자기결정, 용돈, 통장, 카드 타인관리, 용돈, 통장, 카드 공동 관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은 장애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장애수당, 장애 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 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기상 및 취침 자기결정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25
	그렇다	빈도	34	67	101	2.934	.231	
		%	89.5	77.0	80.8			
	아니다	빈도	4	18	22			
		%	10.5	20.7	17.6			
	모르겠다	빈도	0	2	2			
		%	0.0	2.3	1.6			
	전체	빈도	38	87	125			
		%	100.0	100.0	100.0			
식사 시간 자기결정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22
	그렇다	빈도	17	44	61	.472	.790	
		%	45.9	51.8	50.0			
	아니다	빈도	19	38	57			
		%	51.4	44.7	46.7			
	모르겠다	빈도	1	3	4			
		%	2.7	3.5	3.3			
	전체	빈도	37	85	122			
		%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낮 시간 이용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25
	그렇다	빈도	33	75	108	.443	.801	Bar chart for '낮 시간 이용 자기결정' (N=125). The chart compares responses for '그렇다' (Yes), '아니다' (No), and '모르겠다' (Don't know) for two groups: '신체적 장애' (Physical disability, blue bars) and '정신적 장애' (Mental disability, hatched bars). The percentages are: '그렇다' (86.8% vs 86.2%), '아니다' (13.2% vs 12.6%), and '모르겠다' (0.0% vs 0.1%).
		%	86.8	86.2	86.4			
	아니다	빈도	5	11	16			
		%	13.2	12.6	12.8			
	모르겠다	빈도	0	1	1			
		%	0.0	1.1	0.8			
	전체	빈도	38	87	125			
		%	100.0	100.0	100.0			
국가 보조 금 관리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19
	그렇다	빈도	19	18	37	12.185 **	.002	Bar chart for '국가 보조금 관리 자기결정' (N=119). The chart compares responses for '그렇다' (Yes), '아니다' (No), and '모르겠다' (Don't know) for two groups: '신체적 장애' (Physical disability, blue bars) and '정신적 장애' (Mental disability, hatched bars). The percentages are: '그렇다' (52.8% vs 21.7%), '아니다' (47.2% vs 73.5%), and '모르겠다' (0.0% vs 4.8%).
		%	52.8	21.7	31.1			
	아니다	빈도	17	61	78			
		%	47.2	73.5	65.5			
	모르겠다	빈도	0	4	4			
		%	0.0	4.8	3.4			
	전체	빈도	36	83	119			
		%	100.0	100.0	100.0			
용돈 , 통장 , 카드 자기 관리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21
	그렇다	빈도	20	25	45	6.666*	.036	Bar chart for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N=121). The chart compares responses for '그렇다' (Yes), '아니다' (No), and '모르겠다' (Don't know) for two groups: '신체적 장애' (Physical disability, blue bars) and '정신적 장애' (Mental disability, hatched bars). The percentages are: '그렇다' (54.1% vs 29.8%), '아니다' (43.2% vs 67.9%), and '모르겠다' (2.7% vs 2.4%).
		%	54.1	29.8	37.2			
	아니다	빈도	16	57	73			
		%	43.2	67.9	60.3			
	모르겠다	빈도	1	2	3			
		%	2.7	2.4	2.5			
	전체	빈도	37	84	121			
		%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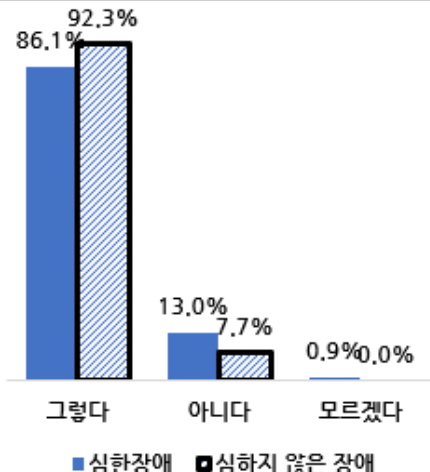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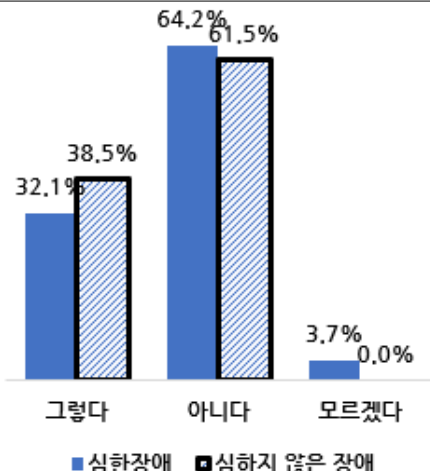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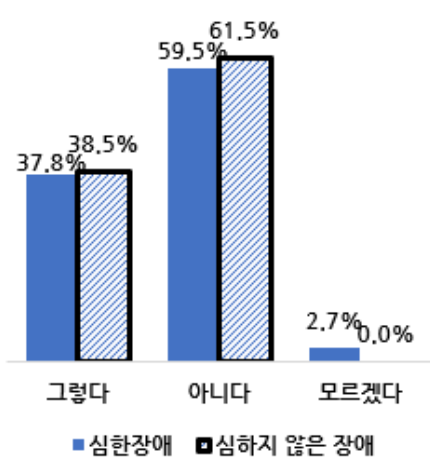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용돈 ' 통장 ' 카드 타인 관리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15
	그렇다	빈도	23	64	87	4.170	.124	67.6% 79.0% 32.4% 17.3% 0.0% 3.7%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67.6	79.0	75.7			
	아니다	빈도	11	14	25			
		%	32.4	17.3	21.7			
	모르겠다	빈도	0	3	3			
		%	0.0	3.7	2.6			
	전체	빈도	34	81	115			
		%	100.0	100.0	100.0			
용돈 ' 통장 ' 카드 공동 관리	구분	분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χ^2	p	N=116
	그렇다	빈도	32	76	108	5.559	.062	91.4% 93.8% 8.6% 1.2% 0.0% 4.9%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91.4	93.8	93.1			
	아니다	빈도	3	1	4			
		%	8.6	1.2	3.4			
	모르겠다	빈도	0	4	4			
		%	0.0	4.9	3.4			
	전체	빈도	35	81	116			
		%	100.0	100.0	100.0			

4) 장애 수준별 자기 결정 비율 차이

- 장애 수준(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에 따라 기상 및 취침에 대한 자기결정, 식사시간 자기 결정, 낮 시간 이용 자기결정,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관리,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용돈, 통장, 카드 타인관리, 용돈, 통장, 카드 공동관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자기결정 비율은 장애 수준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장애수준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장애수준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기상 및 취침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x ²	p	N=128			
	그렇다	빈도	92	12	104	1.203	.548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80.0	92.3	81.3						
	아니다	빈도	21	1	22						
		%	18.3	7.7	17.2						
	모르겠다	빈도	2	0	2						
		%	1.7	0.0	1.6						
	전체	빈도	115	13	128						
		%	100.0	100.0	100.0						
	식사 시간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x ²	p
그렇다		빈도	54	9	63				2.249	.325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48.2	69.2	50.4						
아니다		빈도	54	4	58						
		%	48.2	30.8	46.4						
모르겠다		빈도	4	0	4						
		%	3.6	0.0	3.2						
전체		빈도	112	13	125						
		%	100.0	100.0	100.0						

장애수준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낮 시간 이용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χ^2	p	N=128
	그렇다	빈도	99	12	111	.433	.805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86.1	92.3	86.7			
	아니다	빈도	15	1	16			
		%	13.0	7.7	12.5			
	모르겠다	빈도	1	0	1			
		%	0.9	0.0	0.8			
	전체	빈도	115	13	128			
		%	100.0	100.0	100.0			
국가 보조 금 관리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χ^2	p	N=122
	그렇다	빈도	35	5	40	.633	.729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32.1	38.5	32.8			
	아니다	빈도	70	8	78			
		%	64.2	61.5	63.9			
	모르겠다	빈도	4	0	4			
		%	3.7	0.0	3.3			
	전체	빈도	109	13	122			
		%	100.0	100.0	100.0			
용돈 , 통장 , 카드 자기 관리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χ^2	p	N=124
	그렇다	빈도	42	5	47	.361	.835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37.8	38.5	37.9			
	아니다	빈도	66	8	74			
		%	59.5	61.5	59.7			
	모르겠다	빈도	3	0	3			
		%	2.7	0.0	2.4			
	전체	빈도	111	13	124			
		%	100.0	100.0	100.0			

장애수준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용돈 '통장' 카드 타인 관리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χ^2	p	N=118
	그렇다	빈도	81	8	89	2.534	.282	77.1% 61.5% 20.0% 38.5% 2.9% 0.0%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77.1	61.5	75.4			
	아니다	빈도	21	5	26			
		%	20.0	38.5	22.0			
	모르겠다	빈도	3	0	3			
		%	2.9	0.0	2.5			
	전체	빈도	105	13	118			
		%	100.0	100.0	100.0			
용돈 '통장' 카드 공동 관리	구분	분포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χ^2	p	N=119
	그렇다	빈도	98	13	111	1.052	.591	92.5% 100.0% 3.8% 0.0% 3.8% 0.0%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92.5	100.0	93.3			
	아니다	빈도	4	0	4			
		%	3.8	0.0	3.4			
	모르겠다	빈도	4	0	4			
		%	3.8	0.0	3.4			
	전체	빈도	106	13	119			
		%	100.0	100.0	100.0			

5)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 중복장애 유무에 따라 기상 및 취침에 대한 자기결정, 식사시간 자기결정, 낮 시간 이용 자기결정,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관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타인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공동관리 비율은 중복장애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보다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용돈, 통장, 카드 타인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공동관리는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37〉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기상 및 취침 자기결정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8
	그렇다	빈도	21	60	81	2.846	.241	
		%	77.8	84.5	82.7			
	아니다	빈도	5	11	16			
		%	18.5	15.5	16.3			
	모르겠다	빈도	1	0	1			
		%	3.7	0.0	1.0			
	전체	빈도	27	71	98			
		%	100.0	100.0	100.0			
식사 시간 자기결정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5
	그렇다	빈도	10	36	46	2.081	.353	
		%	38.5	52.2	48.4			
	아니다	빈도	14	31	45			
		%	53.8	44.9	47.4			
	모르겠다	빈도	2	2	4			
		%	7.7	2.9	4.2			
	전체	빈도	26	69	95			
		%	100.0	100.0	100.0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낮 시간 이용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8
	그렇다	빈도	23	63	86	.229	.632	85.2% 88.7% 14.8% 11.3% 0.0% 0.0% ■ 중복장애있음 ■ 중복장애없음
		%	85.2	88.7	87.8			
	아니다	빈도	4	8	12			
		%	14.8	11.3	12.2			
	모르겠다	빈도	0	0	0			
		%	0.0	0.0	0.0			
	전체	빈도	27	71	98			
		%	100.0	100.0	100.0			
국가 보조 금 관리 자기 결정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3
	그렇다	빈도	11	22	33	2.064	.356	42.3% 32.8% 50.0% 64.2% 7.7% 3.0% ■ 중복장애있음 ■ 중복장애없음
		%	42.3	32.8	35.5			
	아니다	빈도	13	43	56			
		%	50.0	64.2	60.2			
	모르겠다	빈도	2	2	4			
		%	7.7	3.0	4.3			
	전체	빈도	26	67	93			
		%	100.0	100.0	100.0			
용돈 , 통장 , 카드 자기 관리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 95
	그렇다	빈도	11	24	35	9.396 **	.009	42.3% 34.8% 46.2% 65.2% 11.5% 0.0% ■ 중복장애있음 ■ 중복장애없음
		%	42.3	34.8	36.8			
	아니다	빈도	12	45	57			
		%	46.2	65.2	60.0			
	모르겠다	빈도	3	0	3			
		%	11.5	0.0	3.2			
	전체	빈도	26	69	95			
		%	100.0	100.0	100.0			

중복장애 유무별 자기결정 비율 차이								그래프
용돈 '통장' 카드 타인 관리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0
	그렇다	빈도	15	55	70	9.897 **	.007	Bar chart for N=90. The x-axis shows three categories: '그렇다' (Yes), '아니다' (No), and '모르겠다' (Don't know). The y-axis represents percentages. For each category, there are two bars: a solid blue bar for '중복장애있음' (With dual disability) and a hatched bar for '중복장애없음' (Without dual disability). The data values are: '그렇다' (62.5%, 83.3%), '아니다' (25.0%, 16.7%), '모르겠다' (12.5%, 0.0%).
		%	62.5	83.3	77.8			
	아니다	빈도	6	11	17			
		%	25.0	16.7	18.9			
	모르겠다	빈도	3	0	3			
		%	12.5	0.0	3.3			
	전체	빈도	24	66	90			
		%	100.0	100.0	100.0			
용돈 '통장' 카드 공동 관리	구분	분포	중복장애 있음	중복장애 없음	전체	χ^2	p	N=91
	그렇다	빈도	19	65	84	7.989*	.018	Bar chart for N=91. The x-axis shows three categories: '그렇다' (Yes), '아니다' (No), and '모르겠다' (Don't know). The y-axis represents percentages. For each category, there are two bars: a solid blue bar for '중복장애있음' (With dual disability) and a hatched bar for '중복장애없음' (Without dual disability). The data values are: '그렇다' (79.2%, 97.0%), '아니다' (8.3%, 1.5%), '모르겠다' (12.5%, 1.5%).
		%	79.2	97.0	92.3			
	아니다	빈도	2	1	3			
		%	8.3	1.5	3.3			
	모르겠다	빈도	3	1	4			
		%	12.5	1.5	4.4			
	전체	빈도	24	67	91			
		%	100.0	100.0	100.0			

마. 자립생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38〉 자립생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통제변수 / 독립변수	B	S.E.	OR	95% CI		P
					하한	상한	
자립생활 욕구	성별	-1.001	.928	.367	.060	2.265	.281
	출생년도	.831	.364	2.295	1.125	4.681	.022
	교육수준	.086	.329	1.090	.572	2.076	.794
	중복장애 수준	-.631	.811	.532	.109	2.609	.437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1.248	1.343	.287	.021	3.992	.353
	부양의무자 유무	-.038	1.031	.963	.127	7.269	.971
	입소기간	.008	.004	1.008	1.001	1.015	.021

-2LL=53.918, Hosmer & Lemeshow test : $\chi^2=3.644$ ($p=.820$)

* $p<.05$, ** $p<.01$, *** $p<.001$

- 장애인의 성별, 출생년도(연령), 교육수준, 중복장애 수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입소기간이 자립생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로지스틱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Hosmer & Lemeshow test $\chi^2=3.644$, $p=.82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4.5%로 나타났다.(Nagelkerke $R^2=.345$)
-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출생년도($OR=2.295$, $p<.05$)와 입소기간($OR=1.008$, $p<.05$)은 자립생활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출생년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연령이 한 단계 감소하면) 자립생활 욕구는 약 1.125배로 증가하며, 입소 기간이 한 단계 증가하면 자립생활 욕구는 1.0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종사자)

가. 응답자 일반현황

1) 성별

- 조사대상자 성별은 남성 54명(37.8%), 여성 89명(62.2%)으로 나타났다.

〈표39〉 성별(종사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남성	54	37.8	A horizontal bar chart with two bars. The first bar, labeled '남성' (Male), has a value of 37.8%. The second bar, labeled '여성' (Female), has a value of 62.2%.
여성	89	62.2	
합계	143	100.0	

2) 연령대

- 조사대상자 연령대는 40대 65명(45.8%), 30대 29명(20.4%), 50대 28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59세로 나타났다.

〈표40〉 연령대(종사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20대	17	12.0	<table><tr><td>60대 이상</td><td>2.1%</td></tr><tr><td>50대</td><td>19.7%</td></tr><tr><td>40대</td><td>45.8%</td></tr><tr><td>30대</td><td>20.4%</td></tr><tr><td>20대</td><td>12.0%</td></tr></table>	60대 이상	2.1%	50대	19.7%	40대	45.8%	30대	20.4%	20대	12.0%
60대 이상	2.1%												
50대	19.7%												
40대	45.8%												
30대	20.4%												
20대	12.0%												
30대	29	20.4											
40대	65	45.8											
50대	28	19.7											
60대 이상	3	2.1											
합계	142	100.0											
평균 연령:42.59세(범위:20~72세)													

3) 직급

- 조사대상자 직급은 생활재활교사 70명(50.7%), 기타 26명(18.8%), 중간관리자 25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표41〉 직급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원장	3	2.2	
중간관리자	25	18.1	
생활재활교사	70	50.7	
간호사	8	5.8	
물리치료사	6	4.3	
기타	26	18.8	
합계	138	100.0	

나.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1) 탈시설화 인지도

- 탈시설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2명(43.4%), 조금 안다 55명(38.5%), 매우 잘 안다 18명(12.6%)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탈시설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탈시설화 인지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잘 모른다	8	5.6	
조금 안다	55	38.5	
잘 안다	62	43.4	
매우 잘 안다	18	12.6	
합계	143	100.0	

2) 탈시설화 관심도

- 탈시설화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음 104명(72.7%), 매우 관심이 있음 21명(14.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탈시설화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탈시설화 관심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전혀 관심 없음	1	0.7	
거의 관심 없음	17	11.9	
관심 있음	104	72.7	
매우 관심 있음	21	14.7	
합계	143	100.0	

3) 탈시설화 필요성

- 탈시설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58명(41.1%), 불필요함 52명(36.9%)으로 탈시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44〉 탈시설화 필요성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필요함	58	41.1	
불필요함	52	36.9	
잘 모르겠음	31	22.0	
합계	141	100.0	

4) 탈시설화 정책 필요 이유

- 탈시설화 정책 필요 이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31명(54.4%), 장애인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12명(21.1%), 자율성 통제 등 집단생활의 한계 때문에 12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표45〉 탈시설화 정책 필요 이유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인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12	21.1	21.1% 54.4% 21.1% 3.5% 장애인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자율성 통제 등 집단생활의 한계때문에 기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31	54.4	
자율성 통제 등 집단생활의 한계 때문에	12	21.1	
기타	2	3.5	
합계	57	100.0	

5)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

-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69명(48.6%),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급속한 정책 추진 45명(31.7%),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탈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15명(10.6%) 순으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46〉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69	48.6	48.6% 10.6% 7.0% 31.7% 2.1%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탈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탈시설 정책으로 야기되는 시설 종사자들의 일자리문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급속한 정책 추진 기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탈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15	10.6	
탈시설 정책으로 야기되는 시설 종사자들의 일자리문제	10	7.0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급속한 정책 추진	45	31.7	
기타	3	2.1	
합계	1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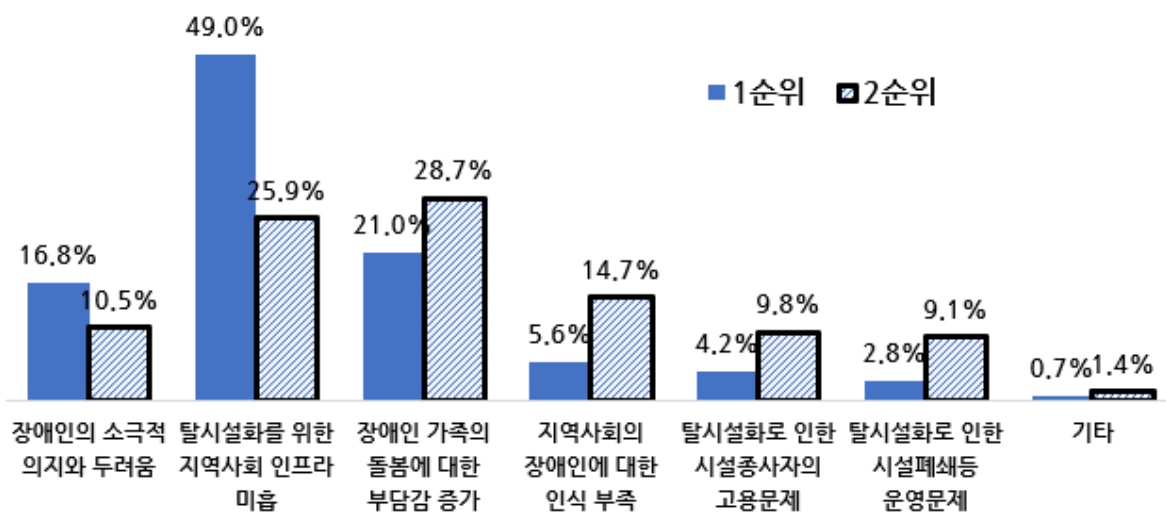
6) 탈시설화 제약 요인

- 탈시설화 제약 요인으로 1순위는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70명(4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순위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 증가 41명(28.7%),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37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표47〉 탈시설화 제약 요인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장애인의 소극적 의지와 두려움	24	16.8	15	10.5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70	49.0	37	25.9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 증가	30	21.0	41	28.7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8	5.6	21	14.7
탈시설화로 인한 시설종사자의 고용문제	6	4.2	14	9.8
탈시설화로 인한 시설 폐쇄등 운영문제	4	2.8	13	9.1
기타	1	0.7	2	1.4
합계	143	100.0	143	100.0

그래프



7) 탈시설화 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 탈시설화 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는 기존의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72명 (50.7%), 기존의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종사자 모두 39명 (27.5%), 공공기관 25명(17.6), 새로운 민간기관(법인)과 종사자 6명(4.2%) 순으로 나타났다.

〈표48〉 탈시설화 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기존의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72	50.7	
공공기관	25	17.6	
새로운 민간기관(법인)과 종사자	6	4.2	
기존의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종사자 모두	39	27.5	
합계	142	100.0	

8)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를 기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로 선택한 이유

-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72명)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36명(50%), 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33명 (45.8%)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주체를 기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로 선택한 이유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36	50.0	
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33	45.8	
기존의 사업 운영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3	4.2	
합계	72	100.0	

다. 시설 탈시설화 추진 현황

1) 탈시설화를 위한 소속 기관의 노력

- 탈시설화를 위한 소속 기관의 노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력하고 있음 102명 (71.8%), 매우 노력하고 있음 19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 즉, 대다수 장애인 거주시설 기관은 탈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0〉 탈시설화를 위한 소속 기관의 노력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거의 노력하지 않고 있음	4	2.8	
노력하지 않는 편	17	12.0	
노력하고 있음	102	71.8	
매우 노력하고 있음	19	13.4	
합계	142	100.0	

2)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방법(다중응답)

-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 방법을 조사한 결과 체험 홈 제공 63명 (25.4%), 이용자들에게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공유 58명(23.4%), 탈시설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56명(22.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47명 (19%) 순으로 나타났다.

〈표51〉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방법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체험홈 제공	63	25.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47	19.0	
탈시설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56	22.6	
이용자들에게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공유	58	23.4	
시설 및 개인별 탈시설 추진계획 마련	17	6.9	
기타	7	2.8	
합계	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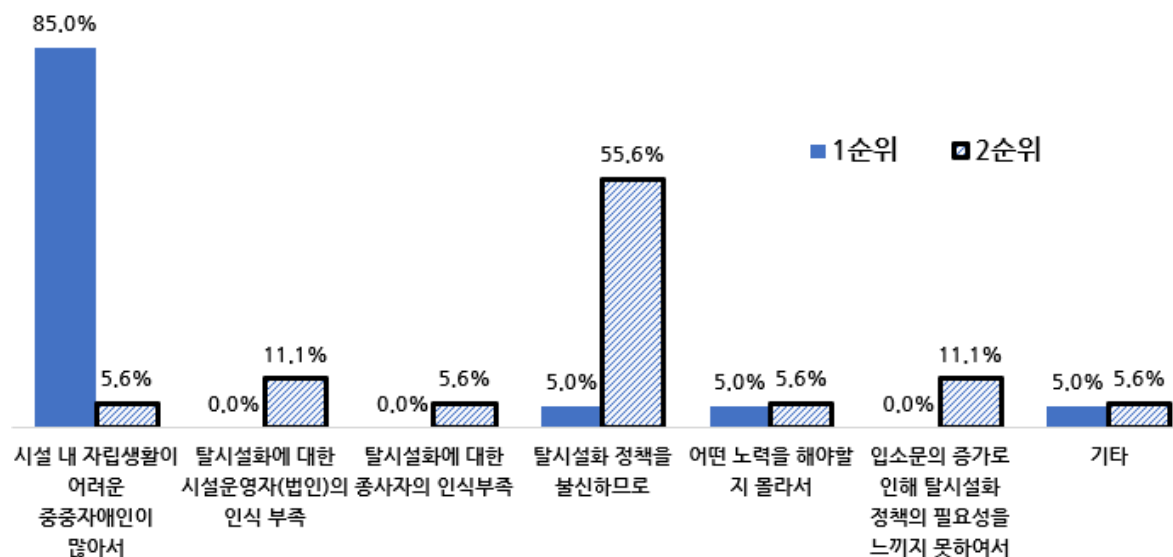
3)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

-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시설 내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아서가 17명(85%)으로 높게 나타났다.
- 2순위는 탈시설화 정책을 불신해서가 10명(55.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2〉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시설 내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아서	17	85.0%	1	5.6%
탈시설화에 대한 시설운영자(법인)의 인식 부족	0	0.0%	2	11.1%
탈시설화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부족	0	0.0%	1	5.6%
탈시설화 정책을 불신하므로	1	5.0%	10	55.6%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몰라서	1	5.0%	1	5.6%
입소문의 증가로 인해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여서	0	0.0%	2	11.1%
기타	1	5.0%	1	5.6%
합계	20	100.0%	18	100.0%

그래프



라. 종사자 고용 관련

1) 탈시설화 정책으로 일자리 상실 및 근로조건 하락 시 대응책

- 탈시설화 정책으로 종사자의 일자리 상실 및 근로조건 하락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고용 승계나 연계를 요구할 것임 72명(50.3%), 탈시설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 34명(23.8%), 탈시설화 정책을 수용하되 보상을 요구할 것임 27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표53〉 탈시설화 정책으로 일자리 상실 및 근로조건 하락 시 대응책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탈시설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	34	23.8	23.8% 18.9% 50.3% 6.3% 0.7% 탈시설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 탈시설화 정책을 수용하되 보상을 요구할 것임 고용승계나 연계를 요구할 것임 퇴사 후 이직 예정 기타
탈시설화 정책을 수용하되 보상을 요구할 것임	27	18.9	
고용승계나 연계를 요구할 것임	72	50.3	
퇴사 후 이직 예정	9	6.3	
기타	1	0.7	
합계	1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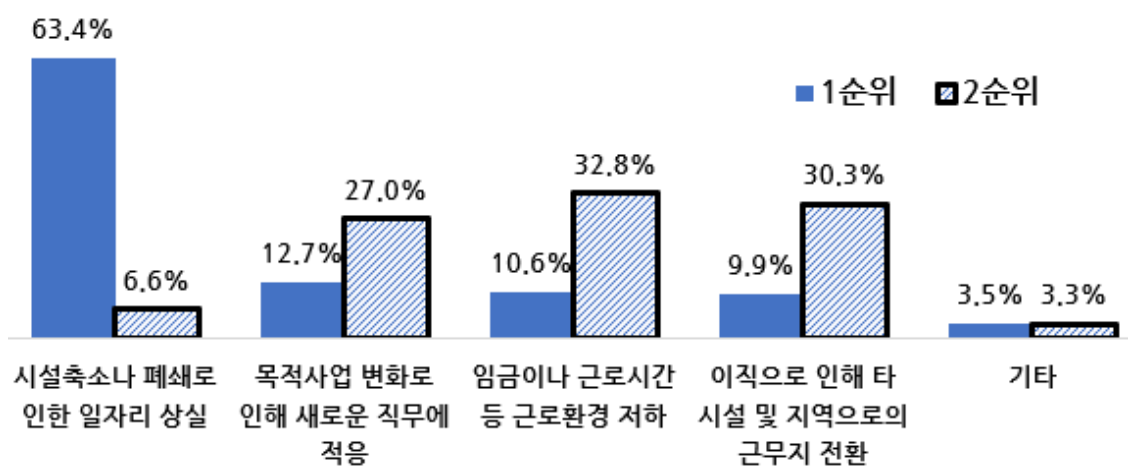
2)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용 문제

-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1순위는 경우 시설 축소나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90명(6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순위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저하 40명(32.8%), 이직으로 인해 타 시설 및 지역으로의 근무지 전환 37명(30.3%) 순으로 나타났다.

〈표54〉 고용 관련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시설 축소나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90	63.4	8	6.6
목적사업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무에 적응	18	12.7	33	27.0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저하	15	10.6	40	32.8
이직으로 인해 타 시설 및 지역으로의 근무지 전환	14	9.9	37	30.3
기타	5	3.5	4	3.3
합계	142	100.0	122	100.0

그래프



3) 탈시설 정책 관련 체감하는 고용불안 정도

- 탈시설 정책 추진 시 체감하는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약간 불안하다 48명(34.3%), 불안하다 43명(30.7%), 매우 불안하다 36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하지 않다는 13명(9.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즉,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90.7%로 나타나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탈시설 정책 관련 체감하는 고용불안 정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불안하지 않다	13	9.3	
약간 불안하다	48	34.3	
불안하다	43	30.7	
매우 불안하다	36	25.7	
합계	140	100.0	

4) 탈시설화가 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탈시설화가 나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사한 결과 현재와 유사한 일을 할 것 같다 67명(47.2%), 현재 일자리를 상실할 것 같다 37명(26.1%), 현재와 전혀 다른 일을 할 것 같다 22명(15.5%) 순으로 나타났다.

〈표56〉 탈시설화가 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현재와 유사한 일을 할 것 같다	67	47.2	
현재 일자리를 상실할 것 같다	37	26.1	
현재와 전혀 다른 일을 할 것 같다	22	15.5	
잘 모르겠다	16	11.3	
합계	1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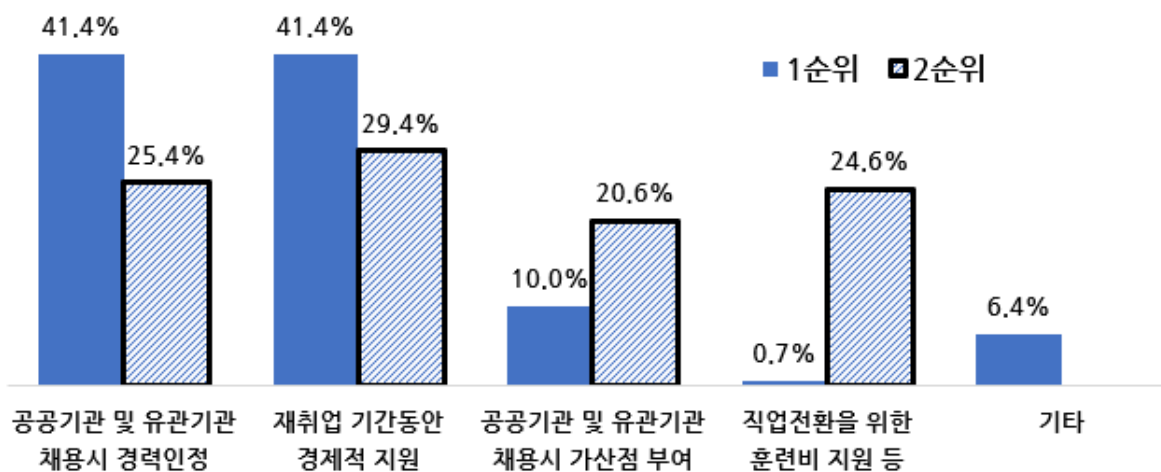
5) 탈시설화로 인한 실직 시 필요한 지원

- 탈시설화로 인해 실직할 경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인정 58명(41.4%), 재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58명(41.4%)으로 나타났다.
- 2순위는 재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37명(29.4%),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인정 32명(25.4%) 순으로 나타났다.
- 1, 2순위 모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인정,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표57〉 탈시설화로 인한 실직 시 필요한 지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 인정	58	41.4	32	25.4
재취업 기간동안 경제적 지원	58	41.4	37	29.4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14	10.0	26	20.6
직업전환을 위한 훈련비 지원 등	1	0.7	31	24.6
기타	9	6.4	0	0
합계	140	100.0	126	100.0

그래프



마. 탈시설 정책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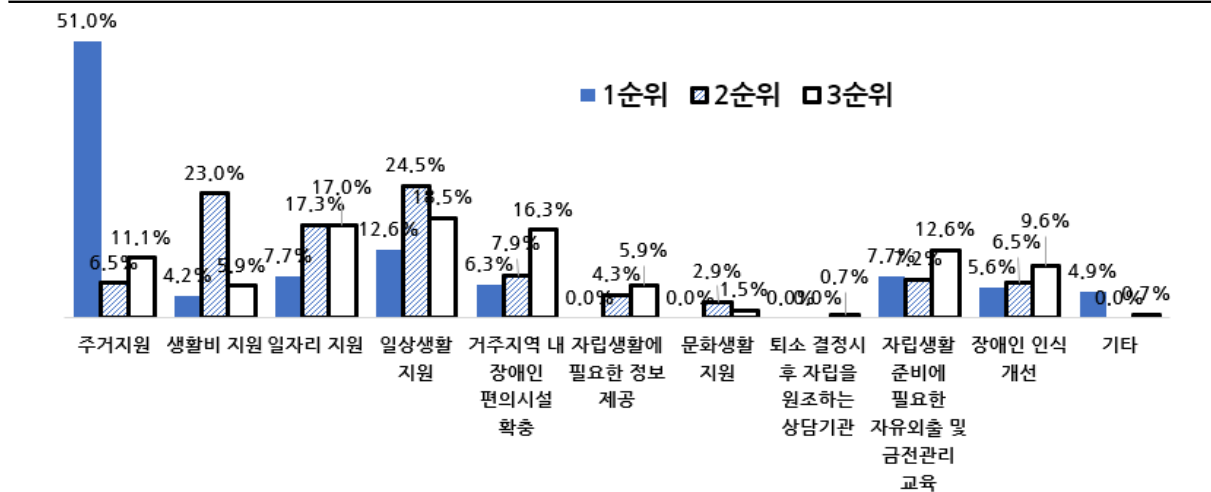
1) 장애인 자립 시 필요한 도움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주거지원 73명(51%)으로 나타났다.
- 2순위는 일상생활 지원 34명(24.5%), 생활비 지원 32명(23%), 일자리 지원 24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 3순위는 일상생활 지원 25명(18.5%), 일자리 지원 23명(17%), 거주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 즉,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주거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조사되었다.

〈표58〉 장애인 자립 시 필요한 도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분포(%)	빈도	분포(%)	빈도	분포(%)
주거지원	73	51.0	9	6.5	15	11.1
생활비 지원	6	4.2	32	23.0	8	5.9
일자리 지원	11	7.7	24	17.3	23	17.0
일상생활 지원	18	12.6	34	24.5	25	18.5
거주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9	6.3	11	7.9	22	16.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0	0.0	6	4.3	8	5.9
문화생활 지원	0	0.0	4	2.9	2	1.5
퇴소 결정시 후 자립을 원조하는 상담기관	0	0.0	0	0.0	1	0.7
자립생활 준비에 필요한 자유의출 및 금전관리 교육	11	7.7	10	7.2	17	12.6
장애인 인식 개선	8	5.6	9	6.5	13	9.6
기타	7	4.9	0	0.0	1	0.7
합계	143	100.0	139	100.0	135	100.0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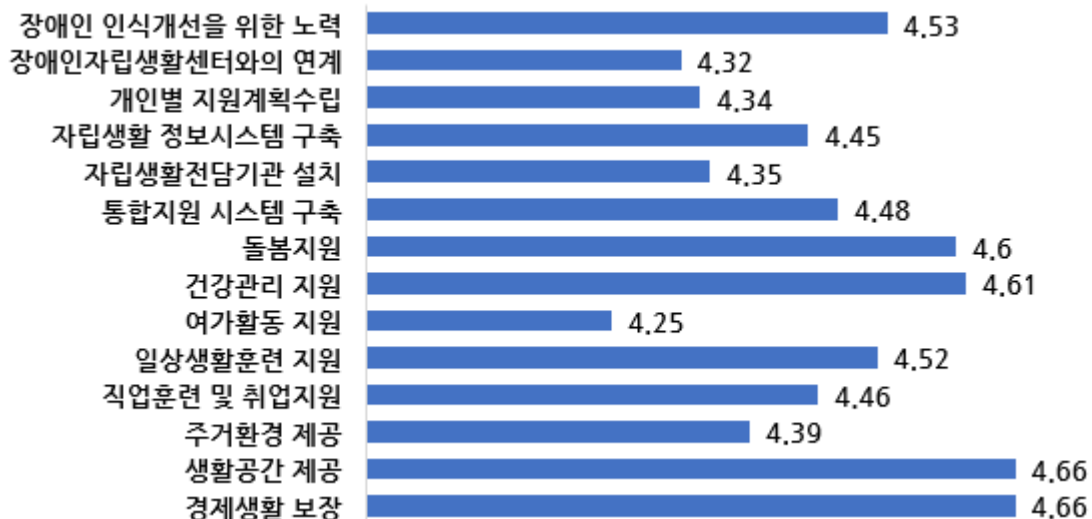
2)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필요 영역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5점 척도 기준) 경제생활 보장 4.66점, 생활공간 제공시설 4.66점, 건강관리 지원 4.61점, 돌봄 지원 4.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14개 모든 영역이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다음 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9〉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필요 영역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필요영역	평균	범위	왜도	첨도	N
경제생활 보장	4.66	1~5	-1.419	-1.419	142
생활공간 제공	4.66	1~5	-1.345	-1.345	142
주거환경 제공	4.39	1~5	-.709	-.709	14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4.46	1~5	-.884	-.884	143
일상생활훈련 지원	4.52	1~5	-1.004	-1.004	143
여가활동 지원	4.25	1~5	-.426	-.426	143
건강관리 지원	4.61	1~5	-1.272	-1.272	142
돌봄지원	4.60	1~5	-1.139	-1.139	141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48	1~5	-.805	-.805	143
자립생활전담기관 설치	4.35	1~5	-.733	-.733	142
자립생활 정보시스템 구축	4.45	1~5	-.613	-.613	141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4.34	1~5	-.472	-.472	14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	4.32	1~5	-.626	-.626	142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4.53	1~5	-1.265	-1.265	142

그래프



바.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60〉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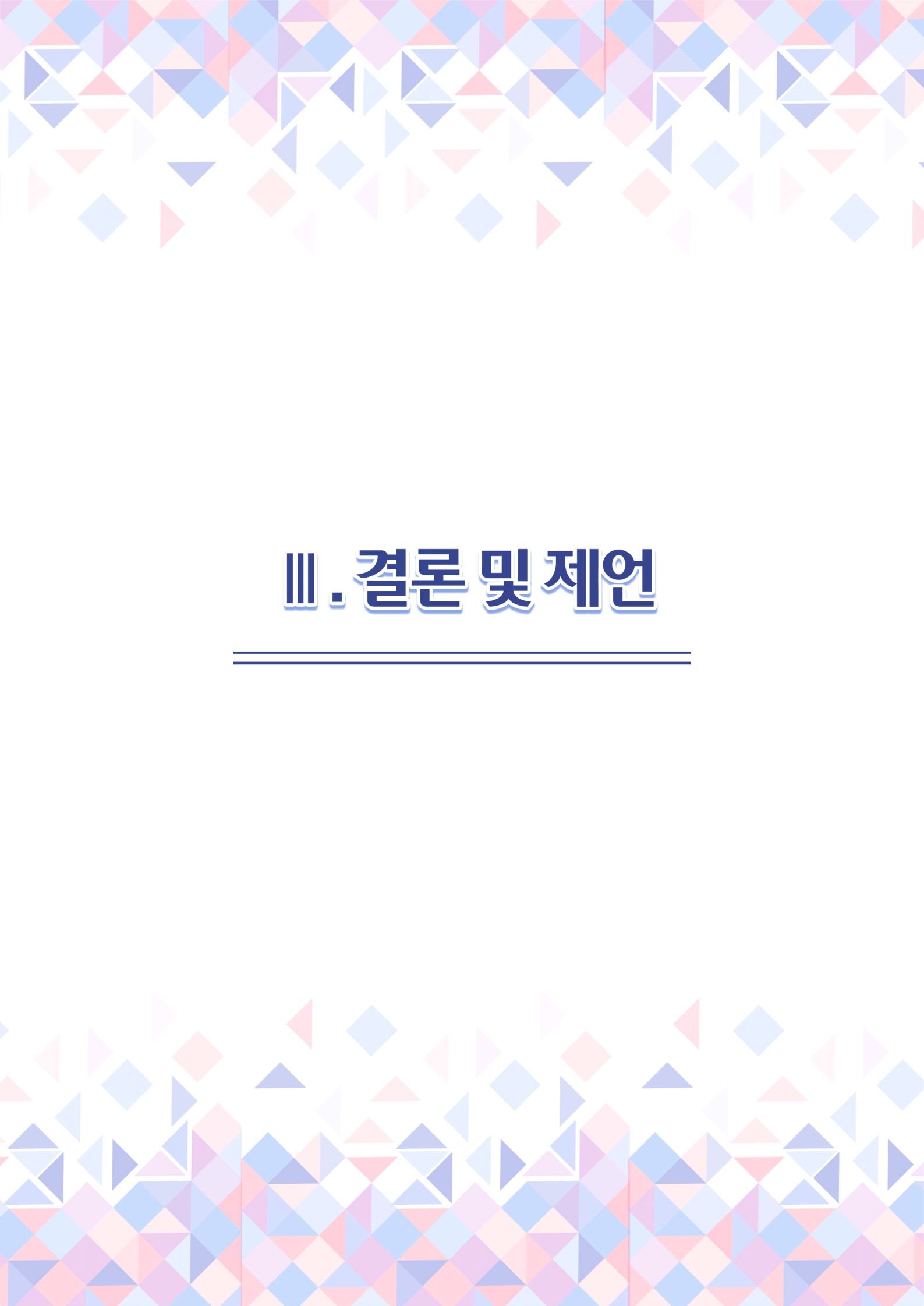
종속 변수	통제변수 / 독립변수	B	S.E.	OR	95% CI		P
					하한	상한	
탈시 설화 정책 필요성	성별	-.338	.464	.713	.287	1.769	.466
	연령	.444	.262	1.558	.933	2.602	.090
	직급	-.354	.572	.702	.229	2.152	.535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296	.359	.743	.368	1.504	.410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	1.312	.526	3.714	1.326	10.406	.013
	탈시설화를 위한 시설의 노력	.690	.381	1.993	.945	4.202	.070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고용불안 정도	-.301	.237	.740	.465	1.177	.203

-2LL=123.630, Hosmer & Lemeshow test : $\chi^2=5.308(p=.724)$

*p< .05, **p <.01 , ***p<.001

■ 해석

- 종사자의 성별, 연령, 직급,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 탈시설화를 위한 시설의 노력,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고용불안 정도가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로지스틱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Hosmer & Lemeshow test $\chi^2=75.308$, $p=.724$)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9.5%로 나타났다.(Nagelkerke $R^2=.195$)
-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OR=3.714, $p<.05$)은 탈시설화 정책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한 단계 증가하면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3.7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제언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하는 성공적인 탈시설화 및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자립과 연관성이 깊은 ‘기상이나 취침’, ‘식사시간’, ‘낮 시간 활용’에 대한 자기결정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용돈, 통장, 카드 등을 직원과 공동관리’하는 비율은 93.3%, ‘용돈, 통장, 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은 37.6%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영역의 자립은 가능하지만 경제생활에 대한 자립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은 34.4%, 희망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5.2%로 나타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아직 자립생활에 대한 마음의 준비나 의지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립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에도 퇴소 의사는 없음(44.4%)이 있음(38.5%)보다 더 높게 나타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자립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탈시설화나 자립생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립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 1순위는 ‘집이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 2순위는 ‘나를 도와줄 전문가’로 나타나 거주시설 장애인은 자립생활에서도 자신이 살 집과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사회 거주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 1순위는 ‘주거지원’, 2순위는 ‘생활비 지원’으로 나타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주거문제와 생활비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자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국가보조금 자기관리와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생활 자립 가능성은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기결정 행사는 장애수준(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의 자기결정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심한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자기결정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 편견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 자기결정 행사는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보다 용돈, 통장, 카드 자기관리 비율이 더 높고, 용돈, 통장, 카드 공동관리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복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경제생활 자립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이 역시 중복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자립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통념, 편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 장애인의 자립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년도와 입소기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출생년도가 높을수록(나이가 어릴수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소자이면서 입소기간이 긴 사람, 연장자보다는 연소자, 입소기간이 짧은 사람보다는 긴 사람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효율적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탈시설화를 위한 소속 기관의 노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력하고 있음(71.8%), 매우 노력하고 있음(1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방법으로 체험홈 제공,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공유,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용 문제로 1순위는 ‘시설 축소나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2순위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저하’로 나타나 시설 종사자들은 탈시설화 이후 일자리 상실 및 근로환경 변화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탈시설 정책 추진 시 체감하는 고용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약간 불안하다(34.3%), 불안하다(30.7%), 매우 불안하다(25.7%)가 불안하지 않다(9.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종사자가 고용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만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탈시설화 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는 기존의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50.7%), 기존의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와 공공기관, 민간 기관과 종사자 모두(27.5%)로 나타났다. 이는 탈시설화 이후에도 기존의 시설 및 종사자가 탈시설화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기를 원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시설 종사자의 욕구가 종사자의 근로 유지 욕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장애인의 탈시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시설 종사자들의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 필요성에 관한 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탈시설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기존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향후 전라남도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자립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에도 거주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든지 간에 탈시설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생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거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효율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거주시설 장애인 중 연소자이면서 장기입소자, 연장자보다는 연소자, 단기입소자보다는 장기입소자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에 대한 마음의 준비나 의지가 다소 부족한 상태이며 자립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때도 퇴소 의사가 없음이 높게 나오는 등 아직은 탈시설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생활에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집이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 응답하였고,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 주거지원을 손꼽아 자립 시 거주지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에 대한 준비 부족은 탈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므로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방향성, 권리, 이점 등에 대한 교육을 장애인과 장애인을 원조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복지사나 장애인활동보조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우선 탈시설화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시설화 인식개선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시설화 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 가정의 변형 및 체험 홈을 설립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시설(공공임대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립 후에도 장애인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자립하더라도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탈시설 이후 장애인은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참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정도 와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 이후 동일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탈시설 초기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탈시설 직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집중적 이용이 필요한 만큼 동일한 서비스량 확보 및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탈시설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탈시설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들을 측근에서 돌보고 있는 종사자이다. 만약 종사자가 탈시설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종사자의 인식과 태도는 은연중에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전가되어 장애인이 탈시설화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시설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고용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거주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탈시설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시설 축소나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걱정하고 있으며 고용 불안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화 후 기존의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주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며 탈시설화 이후에도 종사자의 일자리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기존 시설의 폐지나 다른 목적 사업으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되는 시설 종사자 역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이들을 위한 직업전환이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탈시설-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연관된다.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현재 그 진행 상황 및 설치기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탈시설지원센터 설립과 향후 중앙 탈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두 기관 간 연계와 협업이 이루어져서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탈시설지원센터에서는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화 정보제공 및 욕구 파악, 각자에게 맞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의 삶’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시설지원센터는 간접서비스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의 역할조정을 통해 이용자 특성이 탈시설 발달 단계별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탈시설 후 주간 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탈시설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탈시설화’의 의미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주간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곧바로 재 시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탈시설 이후 장애인들이 다양한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탈시설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함께 협력·연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시설의 과정에서 ‘개인별 탈시설화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시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최대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간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소득지원과 연계하여 성인인 장애인의 경우 최대한 그의 선호와 강점을 고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탈시설화에 대한 희망 정책의 방향성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로의 지향은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또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탈시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 번째,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 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족이다. 즉,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의 탈시설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장애 당사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활한 탈시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간보호, 휴식지원, 캠핑 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설 입소의 주된 경로는 부모가 노령화되어 더 이상 장애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령화된 부모들이 장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시설로 입소시키는 상황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부록

IV. 부록

1.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시설 장애인용)

[설문번호]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시설 장애인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정보와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

TEL . 061-332-4104 FAX . 061-333-9966

○ 조 사 일 : 2021년 월 일

본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본 설문조사에 앞서 응답하고 있는 귀하는 누구인가요?

__ ① 장애인 당사자 (본인)입니다(인적사항 및 시설이용 현황으로)

__ ② 장애인 당사자 (본인)가 아닙니다(아래로)

1-1. 대리 응답하는 이유를 무엇일까요?

__ 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__ ② 장애인 당사자가 어려서

__ ③ 기타()

1-2. 장애인 당사자(본인)와 어떤 관계인가요?

__ ① 부모 __ ② 형제자매 __ ③ 이웃/친척 __ ④ 시설종사자 __ ⑤ 기타()

A. 인적사항 및 시설이용 현황

다음은 설문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일반사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성별	__ ① 남성 __ ② 여성
A2.	출생년도	_____년
A3.	교육정도	__ ① 무학 __ ② 초등학교 졸업 __ ③ 중학교 졸업 __ ④ 고등학교 졸업 __ ⑤ 대학교 졸업 __ ⑥ 대학교 졸업 이상
A4.	주된 장애유형 (등록 기준)	__ ① 지체장애 __ ② 뇌병변장애 __ ③ 시각장애 __ ④ 청각장애 __ ⑤ 언어장애 __ ⑥ 지적장애 __ ⑦ 자폐성장애 __ ⑧ 정신장애 __ ⑨ 심장장애 __ ⑩ 심장장애 __ ⑪ 호흡기장애 __ ⑫ 간장애 __ ⑬ 안면장애 __ ⑭ 장루·요루장애 __ ⑮ 뇌전증장애
A5.	중복장애 유무 및 유형	A5. 중복장애 유무 __ ① 중복장애 있음(A5-1번 문항으로 이동) __ ② 중복장애 없음(A6번 문항으로 이동) A5-1. 중복장애 유형(모두 표기) __ ① 지체장애 __ ② 뇌병변장애 __ ③ 시각장애 __ ④ 청각장애 __ ⑤ 언어장애 __ ⑥ 지적장애 __ ⑦ 자폐성장애 __ ⑧ 정신장애 __ ⑨ 심장장애 __ ⑩ 심장장애 __ ⑪ 호흡기장애 __ ⑫ 간장애 __ ⑬ 안면장애 __ ⑭ 장루·요루장애 __ ⑮ 뇌전증장애

A6.	장애정도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A7.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 ① 수급자임 ☐ ② 수급자가 아님
A8.	연고자 유무	A8. 연고자 유무 ☐ ① 연고자 있고, 왕래하고 있음(A8-1번 작성) ☐ ② 연고자 있으나 연락두절(A8-1번 작성) ☐ ③ 연고자 없음(A9번 문항으로) A8-1. 연고자 관계 ☐ ① 부모 ☐ ② 형제 ☐ ③ 사촌 ☐ ④ 기타()
A9.	부양의무자 유무	☐ ① 부양의무자 있음 ☐ ② 부양의무자 없음
A10.	임소 요청	☐ ① 본인 희망 ☐ ② 사회복지기관 의뢰 ☐ ③ 보호자 의뢰 ☐ ④ 기타()
A11.	임소기간	() 개월 ※ 이전 시설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시설 이용 기간(월 기준으로 작성)
A12.	시설 이용 형태	☐ ① 무료이용 ☐ ② 유료이용
A13.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시설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 ☐ ① 기초생활지도(위생관리,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사관리 등) ☐ ② 사회적응훈련(편의시설 이용, 대인관계, 체험프로그램, 예절교육 등) ☐ ③ 직업재활(직업평가, 직업 전 훈련, 기술훈련, 지원고용, 보호작업장, 취업 등) ☐ ④ 취미·여가활동(취미, 영화, 여행,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 ⑤ 특별훈련(청능훈련, 보행훈련, 점자교육, 수화교육 등) ☐ ⑥ 재활 및 심리치료(수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 ⑦ 공동생활가정, 체험출 등 ☐ ⑧ 성교육, 인권교육, 자치회, 상담, 가족회의 등 ☐ ⑨ 외부단체(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 ⑩ 기타()
A14.	지역	☐ ① 목포시 ☐ ② 여주시 ☐ ③ 순천시 ☐ ④ 나주시 ☐ ⑤ 광양시 ☐ ⑥ 담양군 ☐ ⑦ 곡성군 ☐ ⑧ 구례군 ☐ ⑨ 고흥군 ☐ ⑩ 보성군 ☐ ⑪ 화순군 ☐ ⑫ 장흥군 ☐ ⑬ 강진군 ☐ ⑭ 해남군 ☐ ⑮ 영암군 ☐ ⑯ 무안군 ☐ ⑰ 함평군 ☐ ⑱ 영광군 ☐ ⑲ 장성군 ☐ ⑳ 완도군 ☐ ㉑ 진도군 ☐ ㉒ 신안군 ☐ ㉓ 타지역()

B. 시설 입소 과정 및 생활 현황

다음은 시설 입소 과정 및 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선택 문항은 1순위 2순위로 답해주세요.

B1. 시설에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이 있지만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 — ② 가족들과 갈등이 있어서
- ③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 ④ 독립해서 살고 싶지만 짐이 없어서
- 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⑥ 재활교육, 치료,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어서
- ⑦ 모름 — ⑧ 기타()

B2. 시설에 입소할 당시,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 ① 스스로 결정했다 — ②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결정했다
 — ③ 가족이 강제로 결정했다 — ④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결정했다
 — ⑤ 기타()

B3.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을 나가 집(시설 밖)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타 시설, 병원 등은 제외)

- ① 예 — ② 아니오(B4번 문항으로)

B3-1. 시설 밖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개월

B3-2. 시설을 나와 시설 밖에서 생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 ②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 ③ 단체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 ④ 편의시설이나 시설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⑤ 외출, 식사, 잠 등 일상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 ⑥ 일상생활이 무료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싫어서
- ⑦ 시설 밖에서 병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 ⑧ 시설 내 다른 거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 ⑨ 잘 모르겠다
- ⑩ 기타()

B3-3. 다시 시설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①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 ②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③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어서
☐ ④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 ⑤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 ⑥ 주변의 권유로
☐ ⑦ 기타()

B4. 평일 낮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① 학교에 다닌다(시설 내 특수학급 포함)
☐ ② 직업활동을 한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 ③ 시설 외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장애인복지관 등)
☐ ④ 시설 밖 일반 학원 같은 곳에 다닌다
☐ ⑤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⑥ TV를 본다
☐ ⑦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 ⑧ 기타()

B5. 다음은 귀하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B5-1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B5-2	식사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B5-3	낮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B5-4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비, 귀하에게 오는 후원금을 직접 받아서 관리하십니까?			
B5-5	귀하의 용돈이나 통장, 카드사용 같은 것을 스스로 관리하십니까?			
B5-6	귀하의 용돈이나 통장, 카드사용 같은 것을 직원이나 후견인이 맡아서 관리하십니까?			
B5-7	귀하의 용돈이나 통장, 카드사용 같은 것을 직원과 같이 하고, 직원이 사유이유나 내용을 그때 그때 알려주십니까?			

B6. 지금 시설에 생활하면서 고쳐졌으면(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 10개 중 2개 선택]

시설 여건	_ ①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 수가 더 적어졌으면 좋겠다 _ ② 시설이 낡고, 구조가 불편해서 편리하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_ ③ 나를 도와주는 직원이 더 많아서 내가 원하는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다
서비스 · 프로그램	_ ④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_ ⑤ 음식, 이미용(머리 관리), 옷, 목욕이나 신변처리 같은 서비스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_ ⑥ 건의사항이나 요구를 제대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_ ⑦ 시설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좀 더 장애인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자유성	_ ⑧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낮에 하고 싶은 것, 외출 · 외박 등 내 개인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_ ⑨ 옷장이나 침대, 옷, 개인물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기타	_ ⑩ 기타()

C. 탈시설 인식 및 욕구

다음은 탈시설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선택 문항은 1순위 2순위로 답해주세요.

C1. 탈시설·자립생활(시설 밖에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__ ① 들어본 적 있다 __ ② 들어본 적 없다 (C2번 문항으로)

C1-1. 시설 퇴소나 자립생활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들어 보셨습니까?

- __ ① 가족 또는 친척 __ ② 학교 __ ③ TV 또는 라디오 등 미디어
__ ④ 인터넷 __ ⑤ 복지관, 장애인단체 __ ⑥ 주민센터 등 관공서
__ ⑦ 퇴소한 시설 입소자를 통해 __ ⑧ 기타()

C2. 귀하는 시설을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 __ ① 예 __ ② 아니오(C4번 문항으로) __ ③ 잘 모르겠다(C5번 문항으로)

C3.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__ 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__ ②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__ ③ 단체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__ ④ 편의시설이나 시설환경이 좋지 않아서
__ ⑤ 외출, 식사, 잠 등 일상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__ ⑥ 일상생활이 무료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싫어서
__ ⑦ 시설 밖에서 병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__ ⑧ 시설 내 다른 거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__ ⑨ 잘 모르겠다
__ ⑩ 기타()

▶ C5번 문항으로

C4.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① 시설에서의 생활에 큰 불만이 없어서
☐ ② 시설에서 나가서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 ③ 시설을 나가서 당장 살 곳이 없어서
☐ ④ 시설을 나가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⑤ 시설을 떠나 살아갈 돈, 직업 등이 없어서
☐ ⑥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시설을 나가는 걸 원치 않아서
☐ ⑦ 시설 밖에 의지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 ⑧ 시설을 떠났다가 다시 시설로 돌아온 사례가 많다고 들어서
☐ ⑨ 시설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 ⑩ 기타()

C5.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① 시설장 또는 시설 직원(생활교사 등)의 반대
☐ ② 가족 또는 친인척의 반대
☐ ③ 스스로 자신감 부족(탈시설에 대한 두려움)
☐ ④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 ⑤ 생활비가 없거나 부족해서
☐ ⑥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확보되지 못해서
☐ ⑦ 기타()

C6. 우리나라에는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 ☐ ① 예(C6-1, 2, 3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C7번 문항으로) ☐ ③ 잘 모르겠다(C7번 문항으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회의 경우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공간과 자립정착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활동지원제도가 있습니다.

C6-1. 어떤 도움을 준다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__ ① 나가서 살 집이나 집을 구할 돈
- __ ②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 __ ③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 __ ④ 식사, 청소, 빨래,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
- __ ⑤ 나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 __ ⑥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나 기관
- __ ⑦ 나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나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펴줄 선생님(전문가)
- __ ⑧ 잘 모르겠다
- __ ⑨ 기타()

C6-2. 귀하께서 현재 생활하는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서 산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 __ ① 나 혼자 살고 싶다
- __ ② 몇 명의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
- __ ③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예: 활동지원인)과 함께 살고 싶다
- __ ④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 __ ⑤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
- __ ⑥ 기타()

C6-3. 귀하께서 현재 생활하는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서 산다면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 __ ① 독립형 주택 : 직원의 도움없이 지역사회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는 형태(예: 지역사회 주택 임대)
- __ ② 지원주택 : 1~3명이 한 집에 살면서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필요 시 간헐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
- __ ③ 그룹홈 : 지역사회에서 4명 이내의 장애인이 한 집에 거주하며, 같은 공간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지원하는 주거형태
- __ ④ 공동체형 거주시설 : 직원의 지원이 없고, 임시시설의 형태가 아닌, 임대아파트와 같이 계획된 공동체형 주거 형태(예: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형 주거형태)
- __ ⑤ 잘 모르겠다
- __ ⑥ 기타()

C7. 다음 중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게된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__ ①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__ ②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__ ③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__ ④ 식사, 청소, 빨래, 목욕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 __ ⑤ 시설을 떠나 거주할 곳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__ ⑥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__ ⑦ 여가, 취미,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__ ⑧ 시설에서 나가고 싶을 때 상담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 __ ⑨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외출 및 금전 관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
- __ ⑩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식개선)
- __ ⑪ 기타()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시설 종사자용)

[설문번호]

--	--	--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시설 종사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정보와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

TEL . 061-332-4104 FAX . 061-333-9966

○ 조 사 일 : 2021년 월 일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A. 일반적 사항

다음은 설문에 참여자의 일반사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A2. 연령	_____세
A3. 직급	☐ ① 원장 ☐ ② 중간관리자 ☐ ③ 생활재활교사 ☐ ④ 간호사 ☐ ⑤ 물리치료사 ☐ ⑥ 기타()

B.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다음은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선택 문항은 1순위 2순위로 답해주세요.

B1. 귀하께서는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조금 알고 있다 ☐ ④ 잘 모른다

B1-1. 귀하께서는 타 시·도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

-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 ③ 거의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B2. 귀하께서는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B2-1번 문항으로) ☐ ② 필요하지 않다(B2-2번 문항으로)
☐ ③ 잘 모르겠다(B3번 문항으로)

B2-1.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 ①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__ ②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 __ ③ 자율성 통제 등 집단생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 __ ④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 __ ⑤ 기타()

▶ B3번 문항으로

B2-2.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3. 현재 추진 중인 탈시설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 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함
- __ ②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__ ③ 탈시설 이후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종사자의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
- __ ④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정책을 추진함
- __ ⑤ 기타()

B4. 탈시설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__ ① 장애인 당사자 요인(예: 당사자의 탈시설에 대한 소극적 의지, 두려움 등)
- __ ②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등 정책 환경 요인(예: 24시간 돌봄 등 서비스 부족 등)
- __ ③ 장애인 가족 요인(예: 탈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감 증가 등)
- __ ④ 지역사회 요인(예: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
- __ ⑤ 종사자 요인(예: 종사자 고용 문제 등)
- __ ⑥ 시설 및 법인 요인(예: 시설폐쇄, 시설 전환 등 운영상의 문제 등)
- __ ⑦ 기타()

B5. 다음 보기에 제시된 탈시설화 추진 방식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 ① 기존 시설을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
- ☐ ② 기존 시설을 장애인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 ☐ ③ 기존 시설을 장애인 분야 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예: 노인복지분야 등)
- ☐ ④ 기존 시설 폐쇄 및 법인 해산
- ☐ ⑤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
- ☐ ⑥ 기존 시설을 변환하는 것에 반대
- ☐ ⑦ 기타()

B6. 귀하께서는 탈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독립
- ☐ ② 장애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 ☐ ③ 한 집에서 1~3인이 거주, 운영주체가 공공이고,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는 않고, 필요 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형태(예: 체험홈)
- ☐ ④ 지역사회 내에 4명 이내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같은 공간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지원하는 주거 형태 (예 : 그룹홈)
- ☐ ⑤ 현재의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한 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까지
- ☐ ⑥ 기타()

B7. 탈시설 후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는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존의 시설운영자(법인)와 종사자(B7-1번 문항으로)
- ☐ ②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C1번 문항으로)
- ☐ ③ 새로운 민간 운영자(법인)와 종사자(C1번 문항으로)
- ☐ ④ 상기의 서비스 제공 주체 모두 필요(C1번 문항으로)
- ☐ ⑤ 어느 누구든 상관 없음(C1번 문항으로)

B7-1. 기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주거서비스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② 시설장애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③ 기존 시설의 사업 지속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④ 기타()

C. 시설 탈시설화 추진 현황

다음은 시설의 탈시설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선택 문항은 1순위 2순위로 답해주세요.

C1. 귀하께서 소속된 시설은 현재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노력하고 있다(C1-1번 문항으로) — ②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C1-1번 문항으로)
— ③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C1-2번 문항으로) — ④ 거의 노력하고 있지 않다(C1-2번 문항으로)

C1-1. 소속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

- ① 자립생활 체험 기회(체험홈) 제공 —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 ③ 탈시설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 ④ 이용자들에게 자립생활 정보 제공 및 권유
— ⑤ 시설 및 개인별 탈시설 추진계획 마련 — ⑥ 기타()

▶ 01번 문항으로

C1-2. 시설에서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① 현재 시설에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아서
— ② 운영진(시설 및 법인)의 인식 부족
— ③ 종사자의 인식 부족
— ④ 중앙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 ⑤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몰라서
— ⑥ 지속적인 입소 문의로 인해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⑦ 기타()

D. 시설 탈시설화 추진 현황

다음은 종사자 고용 관련을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선택 문항은 1순위 2순위로 답해주세요.

D1.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본인의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근로조건이 하락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 ①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
☐ ② 탈시설화 정책을 수용하되, 보상을 요구하겠다
☐ ③ 다른 일자리로 고용승계 또는 고용연계를 요구하겠다
☐ ④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 ⑤ 기타()

D2.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① 시설축소나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 ② 기존 시설의 목적사업 변화에 따른 직무변환 및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것
☐ ③ 기존에 비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하락
☐ ④ 시설축소나 폐쇄로 인한 타 시설 및 타 지역으로의 근무지 전환
☐ ⑤ 기타()

D3.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하여 느끼시는 고용불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불안하지 않다 ☐ ② 보통이다 ☐ ③ 불안하다 ☐ ④ 매우 불안하다

D4. 시설변환 시 본인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와 유사한 일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② 나의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③ 현재와 전혀 다른 일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④ 잘 모르겠다

D5. 탈시설화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상실 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경력 인정
- ②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 ③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④ 경력 전환을 위한 훈련비 등 지원
- ⑤ 기타()

E. 탈시설 정책 관련 의견

다음은 탈시설 정책 관련 의견을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선택 문항은 1순위 2순위로 답해주세요.

E1.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고 지역사회로 나간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③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④ 식사, 청소, 빨래, 목욕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 ⑤ 시설을 떠나 거주할 곳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⑥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⑦ 여가, 취미,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⑧ 시설에서 나가고 싶을 때 상담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 ⑨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외출 및 금전관리 교육 등이 필
 요하다
- ⑩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식개선)
- ⑪ 기타()

E2. 다음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성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E2-1. 경제생활보장(소득이나 임금 보장, 자립정착금 지급 등)					
E2-2.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한 영구적 생활공간 제공					
E2-3. 다양한 유형의 주거환경 제공					
E2-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E2-5.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상생활훈련 지원					
E2-6. 자립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E2-7. 건강관리 지원					
E2-8. 돌봄지원(예: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E2-9. 주거, 고용, 일상생활,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등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E2-10. 자립생활지원 전담기관 설치(시설에서 나가고 싶을 때 상담, 지원해 주는 기관, 예: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전담기관)					
E2-11. 자립생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지역사회에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					
E2-12. 탈시설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계획)					
E2-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다른 장애인단체와 교류)					
E2-14. 지역사회의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E2-15. 기타()					

E3.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예 : 시설 폐쇄로 인한 실업 등에 대한대책 마련 등)

E5. 장애인의 탈시설(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연구 책임 김 선 구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공동 연구 조 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문 유 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정 환 울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장

전라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발 행 인 김선구
편 집 인 정환울, 조용운, 이슬아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계 작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 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삼영동 635-9)
전 화 061) 332 - 4104
팩 스 061) 333 - 9966
홈페이지 <http://www.relife.or.kr/>

* 이 책의 저작권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